

『열선전(列仙傳)』의 선경(仙境) 연구*

- '있는 세계'에서 '있어야 할 세계'로

권영애**

〈目 次〉

1. 서론
2. 『열선전』 선경의 소재
 - 1) 『열선전』의 선경 관련 작품들
 - 2) 다섯 선경
 - (1) 천상 선경
 - (2) 명산 선경
 - (3) 섬 선경
 - (4) 명강 선경
 - (5) 세속 선경
3. 『열선전』 선경의 체제
 - 1) 선경의 윤곽
 - 2) 선경 내부의 가치
 - (1) 순조로운 농경
 - (2) 가족애
 - (3) 불의(不義) 권력 부재
 - (4) 재해 예방
 - (5) 질병 치료
 - (6) 마음의 정화
 - (7) 이용후생
 - (8) 선도 구현
4. 결론

1. 서론

널리 알려져 있듯 서기 1세기 유향(劉向)의 『열선전(列仙傳)』은 중국 최고(最古)의 단편 소설집이며, 위진(魏晉)과 당대(唐代)는 물론 이후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신선 관련 작품들에 기본 모티프들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아직 『열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건양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건양대학교 중국일본학부 교수

선전』 이해와 영향에서 중요한 한 추기(樞機)라고 할 『열선전』의 ‘선경(仙境)’이 과연 어떤 세계인지 그 구명을 주제로 한 논고가 없다. 『열선전』의 선경 또한 후대 작품들의 선경에 영향을 끼쳤다¹⁾는 사실이 인정되면서도 그 선후에 고찰이 수행되지 않은 이유는 첫째 무엇보다도 『열선전』에서 선경이 구체 형상으로 등장하는 작품이 70편 중 「邗子」1편에만 국한되어 있고 게다가 자세한 묘사가 결여되어 있으며,²⁾ 둘째, 주인공들의 성선(成仙)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 과정이 제시된 ‘성선담(成仙談)’으로 작품들에 접근한 나머지 다른 면모와 더불어 그 고찰이 간과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³⁾ 『열선전』의 선경 관련 사정이 대체로 그러하지만 다음과 같은 작품들은 독자들에게 선경을 강렬하게 각인하며 관련 상상을 촉진한다.

도안공은 육안의 주물사였다. 자주 불을 다루었는데 하루는 불길에 홀어져 공중으로 올라가 자줏빛이 하늘까지 뻗었다. 도안공이 화덕 아래에 엎드리자, 잠시 후 주작이 화덕 위에 내려앉아 말하기를, “안공! 안공! 화덕이 하늘과 통해 있어서 7월 7일에 당신을 붉은 용으로 맞이하겠소”라고 하였다. 그날이 되어 붉은 용이 도착하자, 큰 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안공은 그것을 타고 동남쪽으로 날아갔다. 온 성읍 사람 수만 명이 모두 함께 그를 전송하자, 그들 모두와 이별을 나누었다고 한다.⁴⁾

- 1) 진대 도연명(365?-427)의 『桃花源記』의 선경이 『열선전』의 「邗子」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사실을 잘 검증하고 있는 지난 논문의 하나를 소개한다. 洪樹華, 『魏晉南北朝志怪小說의 洞穴仙境意象』, 山東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雙月刊), 2005년 第2期, 68-73쪽 참조. 미리 말해 두 선경의 사회 구조는 서로 다르다. 『桃花源記』의 선경은 ‘평등한 소농 중심의 독립된 촌락’이다. 한편 10세기에 편집된 『太平廣記』에 수록된 「採藥民」에도 같은 계보의 선경이 출현한다. “땅이 멈추지 않고 함몰되어 10장 정도나 무너져 내려 약초꾼이 그 사이로 떨어져 ... 영금영금 기어서 ... 그 빛을 따라 1리 정도 더 걸어가니 굴이 갑자기 높아졌다. 그리고 그 굴을 돌아 1리 정도 더 가서야 겨우 동굴 입구로 나올 수 있었다. ... 그곳의 남녀가 입고 있는 의복을 보니 오늘날 사람 같지 않았다. (地陷不止, 至十丈餘, 此人墮中 ... 漸漸匍匐, ... 尋之而行, 一里餘, 此穴漸高, 繞穴行可一里許, 乃出一洞口. ... 男女衣服, 不似今人)”, 李昉 등, 김장환 외 옮김, 『採藥民』 『태평광기』 1, 서울: 학고방, 2000, 613-620쪽.
- 2) 위진시대 유선시(遊仙詩)에서도 선경 묘사는 부진하다는 보고가 있다. “전체적으로 유선하는 행차에 대한 묘사와 행선지를 밝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선경의 경치에 대한 묘사는 별반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광철, 『위진시대 유선시 연구』, 『중국어문논집』 14집, 중국어문학회, 2000, 621쪽.
- 3) 『열선전』의 작품들이 성선 서사구조를 기본으로 하지만 사회 정치 차원의 문제들이 직접 간접 제기되어 있어 그 양상을 다룬 줄고가 있다. 권영애, 『『열선전』의 반동인물과 주인공의 세속 활동 모티프 고찰』, 『중국학논총』 제43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4.

저센 비가 내리며 육안 사람 수 만 명이 전송하는 가운데 성선한 대장장이 도안공이 붉은 용을 타고 날아가는 모습은 장관이며, 그가 안착할 선경은 동남 방향 아득히 먼 천상에 소재하고, 신선 도안공의 영원한 귀속처로 제시되어 있다. 그곳을 모든 독자가 선망하였을 것이며, 그리하여 성선에 불로장생의 존재가 된다는 그 자체의 의의가 있지만 성선의 목적이 '선경 입경'이라는 메시지가 부각되기도 하였을 것이다.⁵⁾

인간은 여러 사정과 이유로 현실 세계에서 갈등하고 좌절하며 소망을 기탁할 이상향을 이야기한다. 특히 작가들은 인간 삶의 한계와 욕망,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 비리와 불의에 고뇌하며 그 대안으로 픽션, 즉 소설을 창작하기도 한다. '있는 세계'를 비판하고, '있어야 할 세계'를 소망하는데, 동아시아 최초의 단편집인 『열선전』의 작가들도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선경'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⁶⁾

이상의 의의를 기저로 하여 본고에서 필자는 『열선전』의 선경이 어떠한 이상세계인지 탐색하려 한다. 탐색을 객관화하기 위해 작품 외부 정보를 제한하고 검증하면서⁷⁾ 작품 내부의 선경에 관련된 국면과 단서와 시사를 고찰해, 첫째, 『열선

4) “陶安公者，六安鑄冶師也。數行火，火一旦散上行，紫色衝天。安公伏冶下求哀。須臾朱省，曰：“安公！安公！治與天通。七月七日，迎汝以赤龍”至期，赤龍到，大雨，而安公騎之東南上。一城邑數萬人，衆共送視之，皆與辭決云。”，유향, 김장환 역, 「도안공」, 『열선전』, 서울: 예문서원, 1996, 226-227쪽. 이 책은 『열선전』을 대상으로 원전비평을 엄밀하게 수행하고 정확하게 국역한 노작이다. 굳이 중국에서 출간된 원서에서 인용하지 않는다.

5) 진정염과 임기담은 선경을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즉 “이 세상에 아직 없는 더 좋은 곳”이라고 포괄하면서, “더 나은 곳을 본능적으로 부단히 추구하기 마련인 인간에게 유토피아의 꿈이 없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특히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부정적인 평가가 심할수록 이에 대한 동경과 추구는 강열할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의 유토피아 사상』, 지식산업사, 1993) 도안공의 선경 입경 국면에는 주물(鑄物)로 이웃의 삶에 기여한 공로뿐만 아니라, 그의 하층계층 처지와 재능 분발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6) 李豐楙는 선경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선경은 신선전설 중의 낙원 이미지이고, 장수 일락을 상징하며, 인류가 세간의 번뇌와 근심과 생명의 무상을 일소하며, 풍성하고 완미함을 얻는 이상 경계이다.”, 『仙境與遊歷 - 神仙世界的想象』, 北京: 中華書局, 2010, 10쪽.

7) 예를 들면, 『열선전』의 작품들에는 주지되어 있듯 4세기경에 추가된 작품 외부 정보인 「찬(讚)」이 작품마다 작품의 일부처럼 부착되어 작품 해석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데, 작품의 선경 관련 정황과 다른 해석 사례가 꽤 있어 검증이 요구되기도 한다. 필자는 작품 자체와 작품들의 공유 요소, 그리고 작품과 작품의 관계 고찰을 이 논고 작성에서 중시하였다. 작품 외부 정보는 작품을 살피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작품을 잘못 읽는 선입견으로 작용

전』 선경 탐색의 기초로 그 실제화의 관건인 선경의 소재 여부를 점검하겠다. 둘째, 「한자」의 선경을 자세히 검토하여 『열선전』 선경 체제의 윤곽을 설정하고, 일정한 전제와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체제 내부의 가치를 탐색하겠다. 셋째, 이상을 총괄하여 『열선전』 선경의 특징과 의의를 정리하려 한다.

2. 『열선전』 선경의 소재(所在)

선경은 “인경(人境)에 상대되는 인간 밖 세계로 이질화된 공간”⁸⁾으로 세속과는 다른 차원의 공간이기에 선경 자체와 더불어 그 소재에 독자는 먼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 제시는 독자들의 관련 인식과 상상에서 정초(定礎)가 되며, 독자들의 서사 이해와 상황 인식을 구체화해 주기 때문이다. ‘어떻게 가느냐’와 더불어 ‘어디에 있는지’도 관심의 대상이며, 후자가 우선일 수 있다. 그리하여 『열선전』의 선경 검토에서 그 기초로 처리하여야 할 문제가 선경의 소재이다. 작가는 신선 지향의 주제를 형상화하려면 선경의 실재성도 시현하여 그 지향의 정합성을 구축하여야 하고, 독자에게 선경을 인식시키려면 먼저 그 소재를 언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선경의 소재가 선도의 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열선전』의 선경을 살핀 손손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선경의 위치 변화는 신선 방술의 진화 발전과 서로 보완하여 진행되었고, 대체로 하늘, 산, 섬 세 개가 있다. ... 신선 방술이 완비되어 가면서 선인의 생존 공간에 대한 환상도 확장되어 구중운천(九重雲天)을 대신하여 숭산준령(崇山峻嶺)이 신선의 주거지로 변했다. ... 산은 만물을 포용하는 가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하늘로 올라가기 가장 좋은 계단이다. 『열선전』의 여러 신선은 각색의 산림에 모습을 감췄다.⁹⁾

하거나 다른 해석을 가로막을 수 있다. 작품 자체를 중시하며, 선경 또한 작품에 있는 그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8) “仙境即爲相對於人境的一種人外世界，成爲異質化的空間，... 也就是異于凡俗世界的異次元存在。” 李豊楸, 위의 책, 12쪽.

신선 방술이 전개되면서 『열선전』 이전에 선경이 '구중운천'에서, 산의 인덕과 하늘과 가까운 위치로 하여 '송산준령'으로 이동하였으며, 대체로 '하늘, 산, 섬'에 소재한다고 하였다. 즉, 천상 선경, 명산 선경, 섬 선경이 있으며, 『열선전』의 선경은 대체로 '송산준령'의 명산 선경이라고 하였다. 이 개설이 『열선전』 선경의 소재를 언급한 대표 사례인데, 동의할 수 없다. 『열선전』의 선경을 검토한 결과, 명산 선경보다는 천상 선경이 많았다. 명산 선경은 2편에 불과하고, 천상 선경은 15 편이다.¹⁰⁾ 둘째, 『열선전』에는 또 손손의 지적과는 달리 세 선경 이외에도 두 선경이 더 있었다. '강 선경'과 '세속 선경'이다. 이러한 소재 양상의 차이는 『열선전』의 선경 연구와 후대의 선경 연구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9) “仙境位置的變化是和神仙方術的演進相輔而行的，大致分爲天、山、島三个層面。…… 当神仙方術日趨完善之際，涉及仙人生存空間的幻想也日益拓展開來。拋開九重云天，崇山峻嶺亦變成仙人的住地。……山不但有着包容万物的胸怀，而且离天最近，是登天的最佳階梯。『列仙傳』的諸仙几乎都遁形各色山林。” 孫遜，『中國古代小說與宗教』，上海：復旦大學出版社，2000，46-47쪽.

10) 본고 2-2)-(1) (2) 참조. 정선경도 『열선전』에는 “천선형 설화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선경설화의 구조적 특징에 관한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제27호, 중국어문연구회, 2004, 584쪽) 한편 『열선전』의 후대에 이르러서도 천상 선경 선호 경향이 일부 지속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대 독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서기 4세기 『열선전』의 찬자(讚者) 孫綽(320?-377?)과 郭元祖(327-420)는 「馬丹」의 「찬(讚)」에서 ‘엄밀한 범망 펼쳐 놓았지만, 질풍 속에 몸을 실어, 갑쪽같이 홀로 승천하여, 선공으로 자취 감추었네(密綱將設, 從禮迅風, 杳然獨上, 絕跡玄宮)’라고 하여, 마단이 천상 선경에 입경하였다고 부각하였다. 하지만 다음 「마단」의 작중 정황에는 그런 해석을 할 근거가 없다. “마단은 진나라 경 땅 사람이다. 문후 때 대부가 되었으며, 현공 때에 이르러 다시 막부정이 되었다. 현공이 경을 토벌하고 돌아와 공대자를 살해하려 하자 마단은 곧 떠났다. 조선자 때에 이르러 안거를 타고 진나라 도읍에 들어가 여러 대부들을 방문했다. 영공이 그에게 벼슬을 시키고 싶어서 무례한 방법으로 강요하자 갑자기 질풍이 불어와 집을 날려버렸고 마단은 그 회오리 바람 속으로 들어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북방 사람들은 그를 존송하여 제사를 지낸다.(馬丹者，晉耿之人也，當文侯時，爲大夫，至獻公時，復爲幕府正。獻公滅耿，殺恭太子，丹乃去。至趙宣子時，乘安車入晉都，候諸大夫。靈公欲仕之，逼不以禮，有迅風發屋，丹入迴風中而去，北方人尊而祠之)”(「馬丹」, 유향, 김장환 옮김, 위의 책, 107쪽-107쪽). 작중에는 성선 국면이 없으며, 선경의 소재를 떠나 선경 자체를 추정할 단서가 없는 형편이다. 마단은 도사이며 그 회오리바람은 영물이 아니라 그의 비범한 도술로 보아야 자연스럽다. 영공의 무례에 대응하여 마단은 감소술(感召術)을 구사해 자취를 감추어버린 것이다. 찬자는 「여환여녀」(같은 책, 243쪽)과 「玄俗」(같은 책, 255쪽)에서도 같은 사정의 추정을 반복하고 있다. 작중 정황과 무관한 이러한 추정은 당대의 천상 선경 선호 경향과 관련된다고 본다. 『열선전』 시대에 이르러 명산 선경이 대세가 되었다는 손손의 개설은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1) 『열선전』의 선경 관련 작품들

다섯 선경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우리는 선경이 『열선전』 모든 작품들에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비롯해 다음 사항들을 먼저 인지하여야 한다. 첫째, 『열선전』 70편이 모두 신선을 다룬 신선담이 아니라는 것이다.

직구군은 태산 기슭의 도사이다. 무제 때 도술로써 은상을 받았다. 머리카락이 희어졌다가 다시 검어졌으며, 이가 빠졌다가 다시 돌아났다. ... 무제가 몇 리를 올라갔더니 과연 오른쪽 발가락이 부러졌다. 무제는 그 일을 꺼림칙하게 여겨 태산에 제사만 올리고 돌아와 직구군을 위해 사당을 세우고, 그를 위한 제사를 계승하여 받들도록 하였다고 한다.¹¹⁾

작가는 직구군이 태산 기슭의 ‘도사’라고 밝히고 있고, 작중 어디에도 선경 묘사가 없으며 그 관련 암시나 추정할 단서가 없다. 새삼스럽지만 도사는 신선이 아니다. 도사는 도술 등으로 세속의 보통 사람들과 구별되는 걸출한 능력을 지녔지만 어디까지나 신선 이전의, 신선이 되기 위해 여전히 수련 중인 존재이다. 선경은 주인공의 성선 국면에서 주로 그 증빙으로 제시되기에 이러한 도사담에서는 선경이 시사될 수 없는 것이다. 또 「赤將子興」같은 작품도 마찬가지이다. 「稷丘君」에 서처럼 작중에서 도사라는 정체성 제시가 없지만 작중 정황으로 보아 주인공 적장자여는 도사이며, 이 역시 도사담이기에 선경이 출현할 수 없다.

적장자여는 황제 때 사람이다. 오곡을 먹지 않고 온갖 풀꽃을 씹어 먹었다. 요 임금 때에 이르러 목공이 되었다. 때때로 시중에서 주살 줄을 팔았기 때문에 또한 그를 ‘주살 줄 노인’이라고도 불렀다.¹²⁾

작중 정황으로 보아 적장자여는 오래 장수하는 도사이며, 신선이 되기 위해 여

11) “稷丘君者，太山下道士也。武帝時，以道術受賞賜，髮白再黑，齒落更生……及數里，右足指果折。上諱之，故但祠而還，爲稷丘君立祠焉，爲稷承奉之云。” 유향, 김장환 옮김, 「稷丘君」, 앞의 책 165-167쪽.
12) “赤將子興者，黃帝時人，不食五穀，而噉百草花。至堯堯時，爲木工。能隨風雨上下，時時於市中賣繖，亦謂之繖父云。” 「赤將子興」, 같은 책, 59-59쪽.

전히 수련 중이다. 「赤將子輿」같은 도사담 또한 고찰에서 제외한다.¹³⁾ 이상 사정에 관련된 『열선전』의 도사담은 41편이다.¹⁴⁾ 다음으로 「邛疏」 같은 작품은 주인공의 성선이 암시되기는 하지만 그 선경이 어디에 있는지 그 소재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없다.

공소는 주나라의 봉사이다. 행기 연행술에 능했으며, 석수를 삶아서 복용했는데 그것을 석종유라 했다. 수백 살이 되어 세상을 자유롭게 왕래하다가 태실산으로 들어갔는데, 산속에는 그가 누웠던 돌 침상과 베개가 있다.¹⁵⁾

공소가 사용하던 ‘돌 침상과 베개’를 작가가 작품 말미에서 굳이 언급한 건 공소가 태실산에서 양생을 거듭하여 신선이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취지인데, 그러나 이 암시에 선경에 관련된 함축은 없어 「邛疏」의 선경을 추정하기 어렵다. 「찬(讚)」에서 찬자가 “중악에서 편히 쉬면서, 선정(仙庭)을 거닐며 노닐었네”¹⁶⁾라고 하며 공소가 ‘태실산 선경’에서 거주한다고 하였으나, 근거 없는 추정이다. 찬자는 아마 작중 ‘태실산으로 들어갔는데(入太室)’를 감안하여 그렇게 추정한 것 같다. 이는 공소가 수양과 수련을 심화하기 위하여 태실산으로 이주하였다는 취지이지 공소의 성선을 의미하지 않으며, 더욱이 태실산 선경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 한다. ‘돌 침상과 베개’는 그 수양과 수련의 유품일 뿐이다. 「邛疏」와 같은 작품들도 선경 소재 검토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 즉 신선담이거나 성선담으로 선경이 함축되어 있지만 그 선경의 소재를 추정할 수 없는 작품들이다.¹⁷⁾

13) 앞에서 살핀 「馬丹」도 이 부류의 작품이다.

14) 「寇先」, 「赤將子輿」, 「偃佺」, 「容成公」, 「方回」, 「老子」, 「關令尹」, 「涓子」, 「務光」, 「仇生」, 「介子推」, 「馬丹」, 「陸通」, 「葛由」, 「范蠡」, 「幼伯子」, 「桂父」, 「酒客」, 「任光」, 「祝雞翁」, 「朱仲」, 「脩羊公」, 「崔文子」, 「赤須子」, 「犢子」, 「鹿皮公」, 「昌容」, 「谿父」, 「山圖」, 「陰生」, 「毛女」, 「文賓」, 「商丘子胥」, 「子主」, 「赤斧」, 「呼子先」, 「負局先生」, 「朱理」, 「黃阮丘」, 「女丸」, 「玄俗」

15) “邛疏者, 周封史也. 能行氣鍊形, 煮石髓而服之, 謂之石鐘乳, 至數百年, 往來入太室. 山中有臥石牀枕焉.” 「邛疏」, 같은 책 102-102쪽.

16) “寢息中嶽, 涉步仙庭.” 「邛疏」, 유향, 김장환 옮김, 앞의 책 102쪽.

17) 「邛疏」 이외 「瑕丘仲」, 「園客」, 「呂尚」, 「鉤翼夫人」.

한편 선경 추정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작품은 「赤松子」와 같은 부류이다. 주인공들이 역시 성선하였고 선경이 함축되어 있지만 선경의 소재가 작중에서 애매하게 처리되어 있다.

적송자는 신농 때의 우사이다. 수정을 복용하였으며 그 비법을 신농에게 가르쳤다. 불 속에 들어가 스스로를 태울 수 있었다. 종종 곤륜산 위에 이르러 늘 서왕모의 석실 안에서 머물렀으며 바람과 비를 따라 산을 오르락내리락하였다. 염제의 막내딸이 그를 좇아 역시 신선이 되어 함께 떠나갔다. 고신 때에 이르러 다시 우사가 되었다. 오늘날의 우사는 여기에서 근본한다.¹⁸⁾

적송자와 염제의 막내딸이 성선하였고 세속에서 '떠나갔다'고 하였다. 그들이 선경으로 간 것은 분명하지만, 그 선경이 어떤 선경인지 문맥에 미묘하게 암시되어 있어 해석에 따라 천상 선경일 수도 있고 명산 선경일 수도 있다. 역대의 독자들은 적송자의 직임이 '우사'이고 '바람과 비를 따라 산을 오르락내리락하였다'는 도술에 착안하여 그들이 간 선경을 천상 선경이라고 추정한 듯하다. 그 대표 사례가 바로 이 작품의 찬자이다. "아스라한 적송자, 하늘하늘 막내딸, 손잡고 훨훨 날아, 훌쩍 함께 승천했네"¹⁹⁾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사'가 하늘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작중 세속 신농의 조정에서 비에 관련된 직임을 담당한 관리였고, 작품 말미의 '오늘날의 우사는 여기에서 근본한다'에서도 알 수 있듯, 적송자는 어디까지나 지상 우사의 모델이기도 하다. 또 '바람과 비를 따라 산을 오르락내리락하였다'에서 알 수 있듯 그 승강이 시도되는 공간은 '곤륜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맥으로 보아 곤륜산 정상 모처나 곤륜산과 같은 명산의 선경으로 '떠나갔다'라고도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작품은 고찰자가 나름대로 어느 한곳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赤將子輿」나 「耶跣」와 달리 선경이 미묘하게나마 시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적송자가 '서왕모의 석실'에서 모종 선도 선술을 추구하며 비와 바람을 따를 수 있는

18) "赤松子者, 神農時雨師也. 服水玉以教神農. 能入火自燒. 往往至崑崙山上, 常止西王母石室中, 隨風雨上下. 炎帝少女追之, 亦得仙俱去. 至高辛時, 復爲雨師. 今之雨師本是焉.", 유향, 김장환 옮김, 「赤松子」, 앞의 책, 51쪽.

19) "眇眇赤松 飄飄少女 接手翻飛 泠然雙舉", 「赤松子」, 같은 책, 51-53쪽.

도술을 더불어 시현하는 국면을 주목하며, 두 사람이 간 선경을 곤륜산 '서왕모의 석실'과 같은 선경, 즉 명산 선경으로 추정한다. 이상 사정을 고려하며 『열선전』의 선경들을 살펴본 결과 70편 중 24편에서 다섯 유형 선경이 산재하고 있다.

2) 다섯 선경

(1) 천상 선경

앞에서 살펴본 「陶安公」에서 우리는 도안공이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붉은 용을 타고 천상 선경으로 가는 인상 깊은 장면을 확인한 바 있다. 『열선전』에서 천상 선경이 출현하는 작품은 「陶安公」 등 모두 15편이었다.²⁰⁾ 「嘯父」와 「馬師皇」의 관련 국면을 더 살펴본다.

소부는 기주 사람이다. 젊었을 때 서주의 시장에서 신발 수선하는 일을 했는데,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그의 정체를 알지 못 했다. 나중에 그가 늙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호사자들이 그에게 찾아와 비술을 가르쳐달라고 했으나 배울 수가 없었다. 오직 양모만이 그의 불 만드는 법을 터득했다. 삼랑 위에서 위로 올라갈 때에 이르러 양모와 이별한 뒤 수 십 개의 햇불을 나열해 놓고 승천했다. 서주의 도움에는 그를 받들어 제사하는 곳이 많다.²¹⁾

소부는 시정에서 도사로 장수하다가 드디어 성선을 성취하였고, 천상 선경으로 간다. 그 정황과 더불어 '승천'이 언급되어 있다. '삼랑 위에서 위로 올라갈 때에' 나열한 '수십 개의 햇불'은 '그에게 찾아와 비술을 가르쳐달라'고 했으나 배울 수 없었던 사람들, 즉 경박한 '호사자들'을 경책하는 뜻을 내포한 일종의 시위이기도 할 것이며, 승천은 그들과의 현격한 격차를 시사하기도 한다. 어두운 밤 산 정상에

20) 「甯封子」, 「馬師皇」, 「黃帝」, 「嘯父」, 「師門」, 「彭祖」, 「王子喬」, 「籛史」, 「東方朔」, 「騎龍鳴」, 「主柱」, 「子英」, 「陶安公」, 「陵陽子明」, 「木狢」.

21) "嘯父者, 冀州人也. 少在西周市上補履, 數十年, 人不知也. 後奇其不老, 好事者造求其術, 不能得也. 唯梁母得其作法. 臨上三亮上, 與梁母別, 列數十火而昇. 西邑多奉祀之." 유향, 김장환 옮김, 「嘯父」, 앞의 책, 88쪽.

수십 개 햇불이 전승 인파처럼 도열된 가운데 연출되는 이러한 장면에는 「陶安公」에서처럼 장려미(壯麗美)가 있다.

마사황은 황제 때의 말 의사였다. 말의 상태를 보고 생사의 진단을 내릴 줄 알아 치료하면 곧 나왔다. 나중에 어떤 용이 내려와 ... 입 속에 침을 놓고 감초탕을 먹여 낫게 해 주었다. ... 어느 날 아침에 용이 마사황을 업고 떠나갔다.²²⁾

성선과 선경 관련 묘사가 없지만 애초 병든 용의 하강과 ‘용이 내려와’ ‘마사황을 업고 떠나갔다’에서 마사황의 성선과 선경을 추정할 수 있다. 신이한 의술 재능으로 동물들에게도 선덕(善德)을 쌓아 마사황은 성선하며 마사황이 도달했을 선경은 천상 선경이 명확하다. 시혜와 보은의 메시지가 성선과 거의 같은 비중으로 마사황의 천상 선경 행로에 병렬되어 있다.

(2) 명산 선경

앞에서 살펴본 「赤松子」와 「邗子」 2편이다. 「赤松子」에서 적송자가 성선 이전에 ‘종종 곤륜산 위에 이르러 늘 서왕모의 석실 안에서 머물렀던 사실을 주목하며 적송자가 선호하였던 곤륜산과 같은 명산 선경을 적송자가 떠나간 선경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한자」에서는 명산 선경이 직절하게 그 자체로 명확하다.

한자는 ... 개를 방사하길 좋아했는데, 한번은 그 개가 도망쳐 산의 동굴로 들어갔다. 한자가 따라 들어갔는데 ... 수백 리를 걸어간 끝에 위로 올라가 산꼭대기로 나오게 되었다. 산 위에는 대전과 궁실이 있었는데, ... 한자는 다시 부적을 돌려주기 위해 산으로 돌아갔다. 예전의 개는 털색이 더욱 붉어졌고 ... 100여 년 동안 항상 한자를 따라 왕래했다. 한자는 마침내 산 위에 머물러 살면서 때때로 산을 내려와 그 종족을 지켜 주었다. ...²³⁾

22) “馬師皇者，黃帝時馬醫也。知馬形生死之診，治之輒愈，後有龍下，...乃鍼其唇下口中，以甘草湯飲之而愈...一旦，龍負皇而去。”，「馬師皇」，같은 책，56쪽.

23) “邗子者，...好放犬子，時有犬走入山穴，邗子隨入...行度數百里，上出山頭，上有臺殿宮府，

한자가 개를 따라 산의 길고 긴 어두운 동굴을 지나 드디어 이른 선경은 그 산 정상에 있다. 「邗子」에서 한자로 하여금 선경 입경을 가능하게 한 개는 선경의 신선이 미리 접지한 영물이며, 이후 한자는 그곳과 세속을 왕래하는 사역을 감당 하며 그 공로로 성선에 성공하고, 그 산상 선경에서 거주하며 때때로 내려와 자신의 종족을 돕는다. 명산 선경은 70편 중 2편에 불과하다. 하지만 「邗子」의 선경은 어떠한 이견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명산 선경이 분명하며, 독자들에게 살고 있는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선경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환기시켜 준다. 「邗子」의 이 선경이 문학작품에 최초로 나타난 구체 선경이며, 뒤에 검토되었는데 여러 의미와 의의가 함축되어 있다. 『열선전』에서 천상 선경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邗子」의 이 구체 선경으로 하여 명산 선경의 위상이 천상 선경과 거의 대등해졌다고 할 수 있다. 독자들의 선경 인식과 기대에서도 이 선경이 천상에서 지상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단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해중 섬 선경

「安期先生」과 「服闋」 2편에 출현한다.

안기선생은 ... 동해 가에서 약을 팔았는데 당시 사람들이 모두 '천세 노인'이라 불렀다. 진시황이 동쪽을 순행했을 때 접견하기를 청하여 함께 3일 밤낮 동안 얘기를 나눈 후 수 천만 금에 달하는 황금과 벽옥을 하사하였으나 모두 놓아두고 갔다. 또한 편지를 남겨 놓고 붉은 옥으로 만든 신발 한 켤레를 답례물로 드렸는데 편지에는 "수년 뒤에 봉래산에서 나를 찾으시오"라고 써어 있었다. 진시황은 곧장 서불 노생 등 사신 수백 명을 파견하여 바다로 찾아 들어가도록 했지만, 봉래산에 이르기 전에 갑자기 풍파를 만나 돌아오고 말았다. ... 24)

.....復送符還山上犬色更赤, ...常隨邗子往來百余年, 遂留止山上, 時下來護其宗族, ...", 「邗子」, 같은 책, 248-249쪽.

- 24) "安期先生者, ...賣藥於東海邊, 時人皆言千歲翁, 秦始皇東遊, 請見, 與語三日三夜, 賜金璧度數千萬, 出於阜鄉亭, 皆置去, 留書以赤玉鳥一雙爲報, 曰後數年求我於蓬萊山 ...-始皇即遣使者徐市盧生等數百人入海, 未至蓬萊山, 輒逢風波而還..."「安期先生」, 같은 책, 138-140쪽.

주지되어 있듯 봉래산(蓬萊山) 선경은 중국 발해만의 동해에 위치한 해중 섬 선경으로 알려졌으며, 방장산(方丈山) 영주산(瀛洲山) 선경과 더불어 삼신산(三神山) 선경 중 하나이다. 발해만에서 가깝다고 하지만 망망한 해중에서 운무도 자주 껴 찾기 어렵다. 이 작품에서도 미답의 신비한 곳으로 제시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위치와 기후 특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진시황이 불로 옥망에 급급하여 '수년 뒤'에 봉래산 선경으로 자신을 찾아오라는 안기선생의 당부를 어겼기 때문이다. 진시황은 곧장 불로약 25)을 구하라고 서불 노생을 봉래산 선경으로 파견하였고 그들은 봉래산 선경 도달에 실패한다. 안기선생이 제시한 '수년 뒤'란 조건에는, 그때라야 자신이 봉래산 선경에서 진시황이나 진시황이 파견한 사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 진시황이 수년 간 선도에 종사하며 양생에 면려하여야 한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겠다. 이 작품은 진시황 같은 제왕이라 할지라도 선도를 존중하지 않거나 종사하지 않는다면 선경 입경과 불로약 구득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주제로 하고 있다. 그 형상화에는 제왕의 사신단 파견과 더불어 섬 선경이 적합하였을 것이다. 진시황이 경의와 답례로 하사한 '수천만 금에 달하는 황금과 벽옥'을 안기선생이 사양한 것은 재욕을 극복하고 청정을 지향하는 선도의 행위이기도 하지만²⁶⁾ 봉래산 선경 주변에도 방장산 선경 주변에서처럼 '진귀한 보석과 주옥'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방장산 선경은 「服間」에서 등장한다.

북려는 어느 곳 사람인지 모른다. 항상 거 땅에 머물면서 해변에 있는 여러 사당을 왕래하였다. 어떤 세 선인이 사당 안에서 오이 내기 장기를 두다가 북려를 돌아보고 노란 오이 흰 오이 수십 개를 메게 하고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눈을 떠보니 바로 방장산이었다. 방장산은 봉래산의 남쪽에 있다. 그 후 오랫동안 거 땅을 왕래하면서 방장산 위에 있는 진귀한 보

25) “이 삼신산에는 ... 신선과 불사약이 있다.(此三神山者, ... 諸僊人及不死之藥皆在焉)”, 司馬遷, 『書』, 『史記』 卷四.

26) 선도 종사자들의 재욕극복 사례를 둘 만 참조한다. “축계옹은 ... 닭과 달걀을 팔아 천여 만냥을 벌었지만 문득 돈을 내버려 두고 떠났다(祝雞翁者 ... 賣雞及子, 得千余万, 輒置錢去).”, 『祝雞翁』, 같은 책, 155쪽.” “범려는 ... 백여 년 뒤 도 땅에 나타나 도주군이 되었으며, 억만금의 재산을 모아 도주공이라 불렀다. 그 후 재산을 버리고 난릉으로 가서 약을 팔았다.(范蠡者 ... 后百余年, 見於陶, 爲陶朱君. 財累亿万, 号陶朱公, 后弃, 之蘭陵賣藥).”, 유향, 김장환 옮김, 『范蠡』, 앞의 책, 121쪽.

석과 주옥을 가져다 팔았다. ... 27)

복려가 의외에도 해중 방장산 선경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거 땅 해변의 사당들을 순례하며 참배하였기 때문이다. 선도에 종사하는 모습이며 나름대로 양생에 해당한다. 복려가 마침 들른 그 중 어느 한 사당은 방장산 선경에 관련된 사당이고, 그 사당에서 장기를 두는 '세 선인'은 방장산 선경에서 거주하는 신선들로 추정할 수 있다. 세 신선은 「邗子」에서 한자를 선경으로 오게 한 어느 신선처럼 복려가 선경 체험을 할 수 있게 배려한다. 복려에게 미답의 해중 방장산 선경이 실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복려의 성선을 촉진하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복려는 신선들이 부리는 '수십 노란 오이 흰 오이' 영물의 조력으로 바다를 쉽게 비월해 방장산 선경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 선경에는 '진귀한 보석과 주옥'이 많았다. 『열선전』에는 영주산(瀛洲山) 선경은 출현하지 않는다.

(4) 명강 선경

명강 선경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손손의 『열선전』 선경 개괄에서 소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손손의 견해를 포함, 명강 선경이 없다는 작품 외부 정보에서 기인한 선입견에서 자유롭다면, 「琴高」「江妃二女」「呂尚」3편에서의 선경을 명강 선경이라고 비정할 수 있다. 갈홍(283- 343)이 『仙經』에서 '신선삼품설'을 인용해 『抱朴子』에 수록한 이래, 독자들은 신선 관련 작품에서 강을 선경으로 상상하기가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²⁸⁾ 『仙經』과 『抱朴子』와 갈홍의 권위에 영향을 받기도

27) “服閭者，不知何所人，常止菖，往來海邊諸祠中。有三仙人，於祠中博賭瓜，顧閭令擔黃白瓜數十頭，教令嘆目。及覺，乃在方丈山，在蓬萊山南。後往來菖，取方丈山上珍寶珠玉賣之久矣...” 『服閭』, 같은 책, 215-216쪽.

28) 주지되어 있듯 葛洪은 『仙經』에서 신선 삼품설을 인용하였는데 신선들의 명칭에 그 신선들이 거주하는 선경이 포함되어 있고, 천상 선경과 명산 선경만 있다. “『선경』에서 '상사는 몸을 들어 하늘로 올라가서 천선이라 하고, 중사는 명산에서 소요하여 지선이라 하며, 하사는 죽고 부활하여 시해선이라 한다'하였다. 또 그 경에서 '상사는 득도하면 승천해서 천관이 되고, 중사가 득도하면 곤륜산에서 거주하고, 하사는 득도하면 세속에서 장생한다'고 하였다.(按『仙經』云：上士舉形昇虛 謂之天仙 中士遊於名山 謂之地仙，下士先死後脫，謂之尸解仙 其經曰：上士得道，升爲天官；中士得道，栖集昆侖；下士得道，長生世間”，『論仙』 『抱朴

하였겠지만 작중 관련 정황이 애매하기도 하였고 선경의 소재를 판명하지 않아도 무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금고는 조나라 사람이다. 금 연주로 송나라 강왕의 사인이 되었다. 언자와 팽조의 법술을 행하여 200여 년 동안 기주와 탁군 사이를 떠돌아다녔다. 그 후 사람들과 이별하고 용 새끼를 취하러 탁수 속으로 들어가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길, “모두 목욕재계하고 물가에서 기다리고 사당을 세우도록 하라”고 하였다. 금고는 과연 붉은 잉어를 타고 강 속에서 나와 사당 안에 앉았다. 아침이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 금고는 한 달 남짓 머물다가 다시 강으로 들어가 사라졌다.²⁹⁾

이 작품에서 시사된 선경을 마지막 문장, ‘금고는 한 달 남짓 머물다가 다시 강으로 들어가 사라졌다’에서, 강 선경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용 새끼를 취하러 탁수 속으로 들어가는 금고의 행태에서, 우리는 ‘용 새끼’(‘잉어’)가 영물이며 동시에 신선이 되기 위한 금고의 능동성을 알 수 있다. 또 ‘과연 붉은 잉어를 타고 강 속에서 나와 사당 안에 앉았다’는 금고의 행위를 성선에 성공한 금고가 자신의 성취를 세속에 입증하려는 연출된 국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선경이 천상, 산, 해중 섬이라는 선입견을 유지할 경우, 「琴高」는 선경이 시사되지 않은 작품 중 하나로 여기기 쉽고, ‘사람들과 이별하고 용 새끼를 취하러 탁수 속으로 들어가는 금고의 모습을 자진 사거(死去), 즉 시해(尸解) 성선의 수해(水解) 방식의 전주로 간주할 수 있다. 「琴高」의 찬자도 「찬」에서 “붉은 잉어 타고 튀어나오고/맑고 깊은 강으로 들어가 씻었네/이는 물을 통한 시해법으로/그 즐거움 무궁하다네”³⁰⁾라고 하여, 금고의 그 행태를 수해 시해선의 양상으로 정리하며 선경을 언급하지 않

子內篇校釋, 臺北: 世界書局, 1979, 67쪽). 시해선의 선경은 언급이 없으며, 이에 따르면, 후대의 독자들은 강 선경과 세속 선경을 비정하기 어렵다. 애초 발설자인 『선경』의 작자도 선화를 읽거나 들은 한 독자였을 것이며, 그의 견해가 다른 모든 이견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29) “琴高者, 趙人也. 以鼓琴爲宋康王舍人. 行涓彭之術, 浮遊冀州涿郡之間, 二百餘年. 後辭, 入涿水中, 取龍子, 與諸弟子期曰: “皆潔齋待於水傍, 設祠.” 果乘赤鯉來出, 坐祠中, 且有萬人觀之. 留一月餘, 復入水去.” 「琴高」, 유항, 김장환 옮김, 위의 책, 125-126쪽.

30) “出躍鱗, 入藻清沖. 是任水解, 其樂無窮.” 같은 책, 126쪽.

았다.

하지만 시해선 양상으로 규정하려면 무엇보다도 금고의 시해 성선을 입증하는 유류품, 즉 신발이나 의복이나 책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묘사를 작중에서 찾아볼 수 없다.³¹⁾ 「琴高」에서 금고의 성선을 수해 방식이라 하기 어렵다면 금고의 성선은 천선 지선과 같이 영물 잉어의 조력을 받은 방식이며 그 선경은 바로 사건이 전개된 그 강의 선경이라는 추정이 가장 유력하다고 할 것이다. 명강 선경은 다음 「江妃二女」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강비라는 두 여인은 어느 곳 사람인지 모른다. 한수(漢水) 기슭에 놀러 나왔다가 정교보를 만났다. 교보는 그녀들이 마음에 들었지만 신녀(神女)인 줄은 몰랐다. ... 마침내 손수 패옥을 풀어 교보에게 주었다. ... 수십 걸음을 급히 간 뒤에 패옥을 살펴보았더니 가슴이 텅 빈 채 패옥은 온데 간 데 없었으며, 두 여인을 돌아보았더니 금세 보이지 않았다.³²⁾

작중 어디에도 강비 두 신선이 거처하거나 돌아간 선경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찬」에서도 “영묘한 강비 빼어나게 고운데, 때때로 한수 기슭에 나타났네”³³⁾라고 하여 ‘한수 기슭’은 그저 그녀들이 출현한 공간으로만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작중에서 두 여인이 ‘한수 기슭에 놀러 나왔다’고 하였고, 나아가 그 곳에서 정교보와 조우하고 또 사연이 전개되고 있으며, 말미의 ‘두 여인을 돌아보았더니 금세 보이지 않았다’는 극적 처리에서, 그녀들의 선경이 바로 한수 수중 어느 곳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즉 명산과 더불어 명강을 선경으로 암시한 자연스러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추정 역시 작중에서 어떤 다른 선경을 추정을 할 수 있는 단서가 없다

31) 『열선전』 작품들의 시해 성선 방식에는 유류품이 제시되는데 다음은 그 한 사례이다. “200세 가까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사망일을 예고했으나 어떤 사고가 있어서 장사를 치르지 못했다. 나중에 아들 여급이 장사를 치르려고 봤더니 유해는 없고 『옥검』 6편만 관 속에 있었다.(且二百年而告亡, 有難而不葬, 後子偁葬之, 無尸, 唯有『玉鈐』六篇在棺中云.”, 「呂尚」, 같은 책, 84-86쪽.

32) “江妃二女者, 不知何所人也. 出遊於江漢之湄, 逢鄭交甫. 見而悅之, 不知其神人也. …… 遂手解佩與交甫. … 趨去數十步, 視佩, 空懷無佩. 顧二女, 忽然不見.”, 「江妃二女」, 같은 책, 117-119쪽.

33) “靈妃艷逸, 時見江湄”, 「江妃二女」, 같은 책, 119쪽.

는 사정도 고려하면 유력하다고 할 수 있다. 「呂尙」의 선경도 강 선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³⁴⁾

(5) 세속 선경

『열선전』의 선경 소재 탐색에서 강 선경이 작은 쟁점이 되겠지만 세속 선경은 더욱 문제시될 것이다. 강은 산과 더불어 대등한 명소이기에 강 선경은 산 선경과의 자연스러운 병렬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세속 선경은 세속과 연결되기는 하지만, 세속과 차원이 다른 시공이라는 선경의 정체성에서 이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平常生」에서 그 가능성의 단서를 확보할 수 있다. 앞에서 성선담 작품에서 선경이 언급되지 않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는 작품들이 있으며 고찰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다음 「平常生」과 같은 작품들은 그것들과도 또 다르다.

곡성향의 평상생은 어느 곳 사람인지 모른다. 여러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곤 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홍수가 나서 재해를 당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는데, 평상생은 문득 결문산의 꼭대기에서 “평상생이 여기 있다”고 크게 외치고는, 다시 말하길 “홍수와 비는 5일 만에 틀림없이 멈출 것이다”라고 하였다. 과연 홍수가 멈추자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 그에게 제를 올리려고 찾았으나 평상생의 의복과 혁대만 발견되었다. 수십 년 뒤에 다시 화음의 성문지기가 되었다.³⁵⁾

여러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며, ‘의복과 혁대’를 남기고 사라졌다가 다시 ‘화음

34) “여상은 … 반계에서 고기를 낚았지만 3년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하자, … 그 뒤 과연 고기 뱃속에서 병서를 얻었다. … 무왕이 주왕을 토벌할 때 … 『음모』 100여 편을 지었다(呂尙者, …釣於磻溪, 三年不得魚, …已而果得兵鈐於魚腹中. … 至武王伐紂, 嘗作『陰謀』百餘篇…).” (「呂尙」, 같은 책, 84-86쪽) 여상은 반계에서 낚은 물고기의 뱃속에서 병서를 얻고, 그 병서를 기반으로 『음모』를 지어 무왕이 주왕을 공략할 때 활용한다. 신이한 병서를 물고기를 매개로 여상에게 부여한 주체는 반계 수중에 소재하는 선경의 신선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35) “穀城鄉平常生者, 不知何所人也. 數死復生, 時人以爲不然. 後大水出, 所害非一, 而平輒在缺門山頭, 大呼言:“平常生在此!”復云:“水雨五日必止.”止則上山求祠之, 但見平衣帔革帶. 後數十年, 復爲華陰門卒.” 「平常生」, 같은 책, 110-111쪽.

의 성문지기' 노릇을 하는 평상생은 시해 성선을 반복하는 시해선이며, 생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천선 지선 도선 강선과는 달리, 치사(致死)와 부활이 가미된 신선이다. 이 작품에서 선경을 추정할 어떠한 단서도 발견할 수 없다. 결문산 정상 어느 곳을 평상생의 선경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나 평상생이 결문산에 올라간 것은 자신의 부활을 세속 사람들에게 입증하여 선도를 전파하는 동시에 수해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안둔시키는 예언을 널리 알리기에 편리하였기 때문이다. 또 이 작품의 찬자처럼 천상 선경으로 추정하기는 더욱 어렵다.³⁶⁾ '평상생은 ... 여러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곤 했는데'에서, 평상생의 선경을 세속이라고 과감하게 추정해볼 수 있다. 사망하였다가 부활한 평상생은 사망 이전과는 다른 존재, 즉 신선이며, 신선이 거주하는 시공이 선경이기에 평상생에게는 세속이 선경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 '수십 년 뒤에 다시 화음의 성문지기가 되었다'는 결구에 관련하여서는, 평상생이 작중 그 예언을 하고 또 죽었고, '수십 년'을 그런 상태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여 '화음의 성문지기가 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 예언을 하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수십 년'을 익명으로 세속에서 주유하다가 '화음의 성문지기'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시해선을 다룬 「谷春」에서도 같은 사정인데, 사정이 보다 구체화되어 있다.

곡춘은 역양 사람이다. 성제 때 낭을 지냈다. i) 병으로 죽었는데 시체가 식지 않아 가족들이 부고를 내고 초상을 치르면서도 감히 관에 못을 박지 못했다. 3년 뒤에 다시 관건을 쓰고 역양현의 성문 위에 앉아 있자 현민들이 크게 놀랐다. ii) 집안사람들이 그를 맞이했으나 따라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곡춘의 관을 열어 봤더니 옷만 있고 시체는 없었다. iii) 곡춘은 3일 밤을 성문 위에서 머문 뒤 장안으로 가서 장안성의 횡문 위에 머물렀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맞이하려고 따라오자 다시 떠나 태백산으로 갔다. iv) 산 위에 사당을 세웠는데, 곡춘은 때때로 그 사당에 와 머물면서 자고 가곤 했다.³⁷⁾

36) 이 작품의 찬자는 「찬」에서 “잠시 속진에 내려왔다가(暫降塵汗), 결국 운실로 승천했네(終騰雲室)”(같은 책, 110-111쪽)라고 하여, 이 작품의 선경을 천상 선경으로 비정하였는데, 이 작품 내부에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는 단서가 없어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37) “谷春者, 櫟陽人也. 成帝時爲郎. 病死而屍不冷, 家發喪行服, 猶不敢下釘. 三年, 更著冠幘, 坐縣門上. 邑中人大驚. 家人迎之, 不肯隨歸. 發棺, 有衣无屍. 留門上三宿, 去之長安, 止橫門上. 人

i)에서 우리는 곡춘이 시해 성선을 하였다고 짐작하며, ii)의 ‘곡춘의 관을 열어 봤더니 옷만 있고 시체는 없었다’에서 곡춘이 죽었다가 3년 후에 부활한 시해선이라고 확정할 수 있다. 3년 동안 곡춘의 시체가 식지 않아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였던 것이다. 곡춘은 죽은 지 3년 만에 부활해 신선이 되어 자신의 성선을 알리려고 3일 밤을 ‘역양현의 성문 위에 앉아 있다. 세속 사람들에게는 세속이 여전히 세속이지만, 곡춘에게 그곳은 선경에 해당하며 독자들에게도 은연 중 그렇게 인식될 수 있다고 하겠다. 또 곡춘은 그 연속으로 ‘장안으로 가서 장안성의 횡문 위에 머물렀으며, 또 ‘태백산으로 갔고, 자신의 사당에 ‘때때로 와 머물면서 자고 가곤 했다.’ 신선 곡춘의 행위와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세속과 복합된 곡춘의 선경이라고 할 수 있다.³⁸⁾ 이러한 취지의 세속 선경의 사례로 「寇先」을 더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구선이 신선이 아니라 사이갱생술(死而更生術)을 구사하는 도사로 볼 수 있어 제외한다.³⁹⁾ 이상 다섯 선경은 『열선전』 이해에서 주목할 만하며, 후

- 知道迎之，夏去之太白山，立祠於山上，時來至其祠中止宿焉。”，「谷春」，같은 책，205-206쪽.
- 38) 후대에 출현하는 다양한 세속 선경들은 『열선전』 「곡춘」의 이 선경을 기원으로 한다고 하겠다. 당대(唐代)의 「司命君」을 그 하나로 들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선경은 신선 사명군이 기거하는 집이며 그 소재도 특정되어 있다. 하나는 도시의 시장 옆이고 다른 하나는 강변이다. “사명군은 당원괴를 그의 집에 초대하면서 말과 시종들을 모두 객사에 남아 기다리게 하였다. 사명군이 당원괴와 함께 가다가 시장 옆으로 들어가자, 종자 한두 명밖에 없는 작은 문이 나왔다. 그곳으로 가서 겨우 들어가자 ... 또 문을 하나 더 들어가자 매우 큰 집이 있었다. ... 당원괴가 그의 용모와 모습을 보자 위엄이 있고 찬란한 것이 이십여 세의 청년과 같았는데 입고 있는 운관(雲冠)과 하의(霞衣) 및 좌우에서 시종드는 옥동과 시녀 30-50명은 모두 인간세상에서 볼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 당원괴는 사명군의 집을 나서서 몇 리를 가다가 종을 시켜 그곳을 다시 찾아가 보게 했으나 다시는 그의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 ... 10년 후에 당원괴가 강령으로 명을 받들어 가다가 또 강서에 배를 정박하게 되었는데 강 언덕 위에서 사명군을 만났다. 사명군은 그를 한 초가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또 선경(仙境)으로 들어갔다. 그를 목게 하면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음악과 시위들이 이전보다 약간 많아졌으며 모두 그때 사람이 아니었다.(邀元環過其家，留騎從於旅次相候。君與元環同往，引入市側，門巷低所，從者一兩人，纔入，... 又入一門，屋宇甚大，...元環見其容狀偉燦，可年二十許，雲冠霞衣，左右玉童侍女三五十輩，皆非世所有，... 後十年，元環奉使江嶺，又於江西泊舟，見君在岸上，邀入一草堂，又到仙境，留連飲饌，但音樂侍衛，稍多於前，皆非舊人矣)”，李昉 등，김장환 외 옮김，「司命君」，『太平廣記』2，학고방，2001，58-61쪽.
- 39) 작중에 구선의 사후 유포품이 묘사되어 있지 않다. “송나라 경왕이 그에게 도술을 물었으나 가르쳐 주지 않자 즉시 그를 죽였다. 수십 년 뒤에 송나라 성문에 걸터앉아 수십 일 동안 글을 타다가 곧 사라졌다.(宋景公問其道，不告，即殺之數十年，踞宋城門，鼓琴數十日乃去)”(「寇先」，같은 책，129쪽). 참고로 「구선」에서 찬자는 “경공이 그를 죽였으나(景公戮

대의 관련 지속과 변화 탐색에서 원형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3. 『열선전』 선경의 체제

1) 선경의 윤곽

「邗子」의 선경은 『열선전』에서 유일하게 등장한 구체 형상이며, 중국 문학작품에서 최초로 출현한 사례이다. 세속에서 그곳으로 가는 경로와 조력자가 명시되고, 선경이 작중 주요 공간으로 출현하고 있다. 또 그 정경이 묘사되며 거주하는 신선들이 등장하고, 세속과의 소통이 주요 사건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주인공이 성선을 성취하는 성선담이기도 하다. 「邗子」의 선경은 그 위상이 후대 동혈선경의 원형 정도에 그치지 않고, 후대 모든 가시화되는 선경은 소재가 어디든 그 선경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과 변화에 해당한다. 「邗子」의 선경은 어디에 있느냐를 넘어서서 ‘어떻게 있는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독자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한자는 스스로 축 땅 사람이라고 하였다. 개를 방사하길 좋아했는데, 한번은 그 개가 도망쳐 산의 동굴로 들어갔다. 한자가 따라 들어갔는데 십여 일 밤을 보내고 수백 리를 걸어간 끝에 위로 올라가 산꼭대기로 나오게 되었다. 산 위에는 대전과 궁실이 있었는데, 푸른 소나무가 뻗뻗이 늘어서 있고, 선관이 매우 위엄 있게 지키고 있었다. 그곳에서 한자는 옛 아내가 물고기를 씻는 일을 맡아 하는 것을 보았다. 아내는 한자에게 부적을 넣은 함 하나와 약을 주면서 곧장 돌아가 성도 현령 교군에게 전해 주라고 하였

之) 시해 성선하였다네(尸解神遷)”이라고 하였고 선경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여상묘향」에서 여상도 시해 성선을 하였는데, 성선 이후 활동이 없어 세속 선경 검토에서 제외한다. 즉 「여상묘향」은 성선담이지만 선경을 추정할 단서가 없는 작품에 해당한다. “여상은 ... 200세 가까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사망일을 예고하였으나 어떤 사고가 있어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나중에 아들 여금이 장사를 치르려고 왔더니 유해는 없고 『옥검』 6편만 관속에 있었다(呂尚者, ……且二百年而告亡, 有難而不葬, 後子倂葬之, 無尸, 唯有『玉金鈐』六篇在棺中云.)” 유향, 김장환 옮김, 「묘향」, 위의 책, 84-86쪽.

다. 교군이 그 함을 열어 보았더니 치어가 들어 있었다. 그 치어를 연못에 넣어 길렀더니 1년이 지나자 모두 용의 모습이 되었다. 한자는 다시 부적을 돌려주기 위해 산으로 돌아갔다. 예전의 개는 털색이 더욱 붉어졌고 긴 날개가 돋았으며, 100여 년 동안 항상 한자를 따라 왕래했다. 한자는 마침내 산 위에 머물러 살면서 때때로 산을 내려와 그 종족을 지켜 주었다. 축 땅 사람들이 동굴 입구에 사당을 세웠는데,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많아서 항상 악기 소리와 순서를 알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남 지방의 수 천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한자를 받들어 제사지낸다.⁴⁰⁾

처음으로 가시화된 선경은 지상의 산 정상에 있는데, 보통 인간의 시각과 입장이 투영되어 있거나 배려하는 의도가 삼투되어 있다. 아무리 높아도 산 정상은 인간에게 도달이 가능하지 않는 공간이 아니다. 해상의 막연한 어떤 섬은 의지와 노력으로는 접근이 지난하고, 아득한 하늘 너머 천상은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산 정상은 한자 같은 보통 인간이라도 어떤 운회(運回)로 기회가 도래하면 갈 수 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려면 '수백 리'나 이어진 동굴을 '십여 일 밤을 보내고' '걸어'야만 하는 극심한 조건이 있다.⁴¹⁾ 이 큰 난관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경시해서도 안 된다. 간절한 의지로 이행하는 양생과 거의 대등하다. 결국 선경은 인간에게 양면성을 가진 시공이라는 함축이 선경으로 가는 경로에 투영되어 있다. 독자들에게 선경을 경외하게 하고 그 입경을 고무도 하는 설정이며 긴장과 고양의 정서를 유발한다.⁴²⁾

40) “邗子者，自言蜀人也。好放犬子，時有犬走入山穴，邗子隨入，十餘宿，行度數百里。上出山頭，上有臺殿宮府，青松樹森然，仙吏侍衛甚嚴，見故婦主洗魚，與邗子符一函并藥藥，便使還與成都令喬君。喬君發函，有魚子也。著池中養之，一年，皆爲龍形。復送符還山上。犬色更赤，有長翰，常隨邗子往來百餘年。遂留止山上。時下來護其宗族，蜀人立祠於穴口，常有鼓吹傳呼聲。” 유향, 김장환 옮김, 『邗子』, 위의 책, 248-249쪽.

41) 선경이란 용어 자체에 이 세상의 경계 너머라는 뜻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선경(仙境)은 차계(此界)와 피계(彼界) 사이에 쓰여 그 경계의 뜻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저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징적인 통로를 통과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다리나 동굴인데, 이것은 격리의 뜻을 표시한다.”, 李豊林, 『尊論』, 『仙境與遊歷-神仙世界的想象』, 中華書局, 2010, 11-12쪽.

42) 천상이 아니라 산상에 구체 선경이 등장하는 배경에 대하여 다음 지적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莊子』和『楚辭』中昆侖和蓬萊兩個神話系統的融合」에서 顧頡剛은 중국 고대의 신화 체계는 곤륜과 봉래신화 계통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했다. 곤륜신화 계통은 서부 고원에서 발원하고, 봉래신화 계통은 곤륜신화가 東轉한 뒤 동방 연해의 자연조건과 서로 결합한 산

그런데 선경의 모습은 의외로 낮설지 않다. 대전과 궁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위에 조성된 푸른 소나무가 무성하게 늘어서 있다. 그리고 그 건물들을 지키는 수직(守直) 선관과 물고기 씻는 일을 하는 한자의 옛 아내 같은 하급 신선이 있다. 선경의 신선들에게는 위계와 직임이 있다.⁴³⁾ 선경의 이런 체제는 당시 지상의 체제와 다르지 않다. 세속의 신분 체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한편, 선경의 신선들은 세속에 관심을 갖고 세속의 상황에 개입한다. 선경의 어떤 신선은 개와 한자를 선경으로 불러들이고 한자를 사역시켜 치어와 부적, 그리고 약을 세속에 전달하고 있다. 선경의 신선은 떠나온 세속을 망각하지 않고 세속의 상황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세속 사람들을 환난에서 구제하려 한다. 세속에 보내진 치어는 연못에서 길러지며 용의 모습으로 성장한다. 치어가 성장하자 한자는 선경으로 가 부적을 되돌린다. 부적의 용도는 치어의 생명과 성장을 방해하고 훼손하는 세속의 액운 제어였다. 선경에 남아 있던 개가 털색이 붉어지고 날개가 돋는데 앞으로 세속과 선경의 왕래에서 사역될 영물(靈物)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개와 한자는 이후 세속과 선경을 왕래하는 직임을 오래 수행하면서 세속의 어떤 문제 해결과 해소에 기여한다. 그 공덕으로 한자는 드디어 신선이 된다. 이후에도 한자는 세속에 나타나 종족을 지켜주는 사행을 거듭한다. 이 면모는 세속 사람 한자를 사역시키고 신선이 되게 한 선경의 신선의 행태와 그 본질이 동일하기도 하다. 신선의 세속지향이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 세속 사람들은 한자의 선덕을 기리고 액운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기원하기 위해 그 동굴 입구에 사당을 세운다. 한편 선경으로 가는 동굴의 경로 기능이 상실된다. 동굴은 세속과 선경을 연결하는 기능이 있었으나 격리의 기능이 있기도 하였다.

물이다. 나중에 봉래와 곤륜신화 체계는 각각 발전하여 내용이 풍부해졌고, 아울러 전국 중후기에 다시 결합하여 새로운 신화세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張瑞嫻, 「多元文化影響與蓬萊仙境信仰的形成」, 중남민족대학 석사학위논문, 2012년, 7쪽) 이에 따르면 한자의 선경은 ‘봉래와 곤륜신화’가 ‘전국 중후기’에 고양되면서 형성한 ‘새로운 신화세계’의 산물이라고 하겠다. ‘새로운 신화세계’는 아마도 ‘평범한 인간도 선경에 입경할 수 있고, 신선이 될 수 있다’는 『한자』의 비전일 것이다.

43) 김장환은 “『열선전』에 묘사된 선계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의식이 풍족하고 자연 경관이 수려한 명승지”(유향, 김장환 옮김, 위의 책, 10쪽)라고 하였으나 이상 검토에서만 보더라도 『열선전』의 선경은 위계와 직임에 따라 계층이 있었다.

이 작품에서 여백으로 남는 건 용의 모습으로 성장한 치어의 정체가 무엇인가인데, 전후 맥락으로 보아, 개와 같은 영물일 것이다. 개와 치어는 둘 다 성장하는 모습으로 대등하게 병렬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선경과 세속의 소통 국면에서 그 매개인 영물을 또한 부각하고 있다. 우리는 이 작품에서 영물의 성장뿐만 아니라 그 내력과 관련 상황을 보다 폭넓게 알 수 있다.⁴⁴⁾

그런데 「邢子」의 선경 고찰에서 다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세속에 전달된 '부적'과 '약'이다. '부적'과 '약'은 세속의 상태와 상황을 시사한다. 세속은 그것들이 필요할 정도로 위협하다, 액운과 질병이 야기되는 불안하고 부정(不淨)한 시공이라는 것이다. 한자는 '마침내 산 위에 머물러 살면서 때때로 산을 내려와 그 종족을 지켜 주었다'고 하였는데, 한자가 그러기 위해 맞서는 것들이 무엇인지 적시되지 않지만 액운과 질병을 위시하여 삶을 훼손하는 불의나 부조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자의 사당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서남 지방의 수 천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한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 또한 문맥으로 보아 그러한 청원 때문일 것이다.

이상 검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선경은 세속과 차원을 달리하지만 세속의 사람들이 비상한 경로나 영물에 힘입어 입경할 수 있다. 둘째, 선경은 세속의 궁궐과 같은 구조이고 세속과 같은 일상이 있으며, 신선들 사이에 위계와 직임이 있다. 셋째, 세속은 액운과 질병이 야기되는 부정한 시공이지만 선경은 그것들이 모두 제거된 청정한 시공이다. 넷째, 선경의 신선들은 세속의 환난과 고통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구제하려 한다. 다섯째, 세속과 선경을 왕래하는 선경의 사자와 영물은 상급 신선의 점지로 세속과 선경에서 성장한다. 여섯째, 세속과 선경의 소통에 기여하며 선도의 세속 전파에 공덕을 이룬 사람은 신선이 될 수 있다. 일곱째, 신선이 되면 기존 신선처럼 세속 사람들을 여러 환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세속 사람들은 그 은택을 존앙한다.

44) 「자영」에서도 치어, 즉 잉어 새끼가 영물로 성장하는 국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자」처럼 그 소종래, 즉 애초부터 선경과의 관련 사정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자영은…붉은 잉어를 잡았는데, …매번 쌀 알갱이를 먹었다. 일 년이 지나자 …뿔이 돋고 날개가 생겼다.(子英者…得赤鯉…數以米穀食之, 一年, …遂生角, 有羽翼.)”, 「子英」, 같은 책, 212-214쪽.

이상 사항들을 『열선전』 선경 체제의 윤곽으로 삼고자 한다. 나아가 이 기본에서 작동하고 있는 가치들, 즉 선경을 선경답게 하는 체제 내부의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넷째에 관련된 그 구체 양상을 작품들에서 살펴 점검하려 한다. 미리 말해 이 점검은 다음 전제를 조건으로 한다. 선경의 신선들과 세속에 도래한 신선들이 세속 사람들을 위해 세속에서 벌이는 활동이 지향하는 가치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선경에서 이미 구현된 가치이며, 그들은 세속에서 그 가치들을 실현하여 세속을 선경으로 승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굳이 세속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그 가치가 바로 선경 내부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2) 선경 내부의 가치

선경 체제 내부의 구체 가치 탐색에서 내세운 전제는 다음 사정을 기반으로 한다. 신선이 인간과 애초부터 신과 같은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연속으로서 ‘승화된 인간’⁴⁵⁾이며, 『邗子』에서도 살폈듯이 영물도 동물의 연속으로서 ‘승화된 동물’⁴⁶⁾이기에, 선경 또한 세속의 연속으로서 ‘승화된 세속’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승화된 세속’은 작품들에서 문제시되는 삶을 억압하거나 피폐하게 하는 재해나 모순 등이 제거되거나 해소된 시공, 즉 이전에 없었던 차원이 다른 ‘이상향’이다. 이미 언급하였지만 『열선전』의 작품들에서 성선과 선경 입경을 그 중국으로 간주하기 쉽다. 여러 작품에 양생과 수련 국면이 제시된 다음, “그 후 수십 년이 지난 뒤에는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었다”⁴⁷⁾,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⁴⁸⁾, “수백

45) 다음 반고의 정의를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선이란 천부의 성명을 그대로 보전하고 세속 밖의 가치를 고상한 방식으로 추구하는 존재이다. 애오라지 뜻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평정해 삶과 죽음의 영역을 같이 여기며 흥중에 위구와 불안이 없다(神僊者, 所以保性命之眞, 而游求於其外者也. 聊以濫意平心, 同死生之域, 而無怵惕於胸中.”, 班固, 『藝文志』〈方技略〉, 『漢書』, 서울: 경인문화사 영인본, 1780쪽.

46) 「한자」뿐만 아니라 「기룡명」, 「자영」 등에도 영물의 성장 국면이 제시되어 있다. 새삼스럽지만 「도안공」의 ‘붉은 용’이 성장한 영물의 전형이다. 영물의 기원과 활동에 대해서 권영애, 『『열선전』 영물의 내원과 그 지속과 변화 양상』(『중어중문학』 제39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6. 12) 참조.

47) “後數十年, 莫知所在.” 『介子推』, 갈홍, 김장환 역, 위의 책, 104-105쪽.

48) “...去.” 『馬丹』, 같은 책, 107-107쪽.

년이 흐른 뒤 사라졌다⁴⁹⁾ “손을 들어 당시 사람들과 이별하고 떠나갔다⁵⁰⁾ “5년 뒤에 관직을 사임하고 떠났는데 그 중국을 알지 못한다⁵¹⁾ “어느 날 봉황을 따라 날아가 버렸다⁵²⁾ “그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⁵³⁾ “10여 년 뒤에는 그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⁵⁴⁾ “바람을 타고 표연히 사라졌다⁵⁵⁾ “마침내 함께 떠나갔다고 한다⁵⁶⁾ “그 소재를 알 수 없었다⁵⁷⁾ “일주년이 되자 다시 떠났는데 행방을 알 수 없었다⁵⁸⁾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⁵⁹⁾, 이 사례들에서 모든 주인공들의 마지막 행방이 묘연하며 그들이 이룬 곳이 선경이며 최종 귀착지라고 여기기 쉽고 관행으로 용인되어오기도 하였다. 그런데 다음 「赤松子」와 「子英」 같은 작품의 말미를 주목하면 우리는 주인공의 행방 추정 관행을 재고하며 유보하여야 한다. 최종 귀속처가 선경이 아니라 세속일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적송자는 ... 염제의 막내딸이 그를 좇아 역시 신선이 되어 함께 떠나갔다. 고신 때에 이르러 다시 우사가 되었다.⁶⁰⁾

자영은 서향 사람이다. ... 붉은 잉어를 잡았는데, ... 매년 쌀 알갱이를 먹었다. 일 년이 지나자 ... 뿔이 돋고 날개가 생겼다. ... 잉어가 “나는 당신을 맞이하러 왔으니 당신이 내 등에 올라타면 당신과 함께 승천할 것이오.”라고 하였는데, 그 즉시 큰 비가 내렸다. 자영이 그 잉어의 등에 올라타자 솟구쳐 올라 떠났다. 그 후로 해마다 옛집으로 돌아와 식사하고 처자를 만나고 나면 잉어가 다시 그를 맞이하러 오곤 했다. 이렇게 70년을 계속했다.⁶¹⁾

49) “歷數百年去.” 「陸通」, 같은 책, 112-112쪽.

50) “舉手辭時人, 數日而去.” 「王子喬」, 같은 책, 132-134쪽.

51) “五年解印綬去, 莫知其終焉.” 「酒客」, 같은 책, 146-147쪽.

52) “一旦皆隨鳳凰飛去.” 「蕭史」, 같은 책, 151-153쪽.

53) “不知所之云.” 「朱仲」, 같은 책, 158-160쪽.

54) “十餘年, 莫知所之.” 「赤須子」, 같은 책, 175-176쪽.

55) “風飄而去.” 「東方朔」, 같은 책, 178-180쪽.

56) “遂與柱俱去云.” 「主株」, 같은 책, 190-190쪽.

57) “莫知所在.” 「園客」, 같은 책, 192-193쪽.

58) “朞年復去, 莫知所之.” 「山圖」, 202-203쪽.

59) “莫知所之.” 「女丸」, 같은 책, 242-243쪽.

60) 2-1) 주 18) 참조.

61) “子英者, 舒鄉人也. ...得赤鯉, ...數以米穀食之. 一年...遂生角, 有羽翼...魚言: “我來迎汝, 汝上背, 與汝俱昇天.”即大雨. 子英上其魚背, 騰昇而去. 歲歲來歸故舍, 食飲, 見妻子, 魚復來迎之.

성선에 성공하여 대망하던 선경으로 갔던 적송자는 선경에서 안주하지 않고 다시 떠나갔던 세속으로 돌아와 당대 조정의 관리가 된다. 이 사실에는 적송자가 우사 직임을 수행하여 세속의 농경에 예보나 측우 직능으로 조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함축되어 있다. 성선과 선경 안주가 이야기의 종국이 아닌 경우이다. 자영도 마찬가지다. 천선이 된 자영은 해마다 천상 선경에서 세속의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의 유대를 확인하고 정리를 나누기를 70년을 계속한다. 이러한 국면과 취지는 『열선전』의 작품들에서 주인공의 성선과 성선과정을 위주로 조명하여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았던 면모이다. 여러 작품에서 나타나는 위와 같은 국면과 취지는 간과할 수 있는 작은 에피소드가 아니다. 심지어 선도의 종국이 선경 안착이 아니라 세속 도래와 세속에의 기여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세속으로 직접 돌아오는 신선들과는 달리, 선경에서 세속의 일을 하감하며 세속에 개입하는 신선들이 있다. 「자영」에서 신선 자영의 세속 도래가 70년으로 국한되어 있어 그 이후는 선경에 정주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영을 포함 선경의 어떤 신선들은 세속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이미 앞에서 살핀 「陶安公」에서 감지하였다. ‘자춧빛이 하늘까지 뻗었다’는 묘사는 도안공의 불 다루는 기술이 더 할 수 없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표현이며, 선경의 어떤 신선이 이를 인정하고 그의 선경 입경을 인도하기 위해 영물인 주작과 용을 파견하였고, 그는 그 배려로 용을 타고 천상 선경으로 가고 있다. 그 신선이 누구인지 작중에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독자들은 그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감지할 수 있다.⁶²⁾ 「陶安公」에서 도안공의 성선 성취는 그의 역량뿐만 아니라 선경에서 거주하는 어떤 신선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으며 그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이 잘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선경에서 거주하는 익명 신선들과 선경에서 세속으로 돌아온 신선들이 세속 사람들을 위하여 전개하는 행동의 의도는 ‘세속의 승화’이며, 그 활동이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기존 선경의 가치라고 간주하고 그것들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如此七十年.”, 유항, 김장환 옮김, 『子英』, 위의 책, 212-214쪽.

62) 「師門」에서도 세속의 비리에 개입하는 선경의 신선이 은미하게 시사되지만 그 신선이 누구인지 독자는 추정할 수 있다. 아래 3-2)-(3) 참조.

또한 그들 신선이 세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그들이 신선이기 이전에 보통 사람이거나 도사일 때 바라던 이상이기도 하며, 그 이상이 이루어진 이상향이 선경이고, 신선이 된 이후에도 그 연장으로 그러한 '세속의 승화' 활동을 전개한다고 본다.

(1) 순조로운 농경

『열선전』의 첫 작품인 「적송자」에서 이미 살핀 대로 성선에 성공하여 대망하던 선경으로 갔던 적송자는 세속으로 돌아온다. 왜 돌아왔는지 구체 언급이 없지만 적송자가 다시 우사가 되어 조정에서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면모에서, 이 세속회귀 선택에는 백성들의 농경이 한해(旱害) 때문에 피해와 난관이 많으며 이 곤경과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일선에서 직접 그 극복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와 의도가 함축되어 있다고 하겠다. 다음 「팽조」에도 농경 관련 같은 목적의 세속회귀 사례가 제시된다.

팽조는 은나라 대부이다. ... 하나라를 지나 은나라 말에 이르기까지 800여 세를 살았다. ... 도인·행기술에 능했다. 역양에 팽조의 선실이 있는데, 옛날에 이 곳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하면 반드시 곧바로 영험이 있었다. ... 지금도 제사를 끝내고 나면 즉시 땅에 호랑이 발자국이 생긴다고 한다. 나중에 선인이 되어 승천하여 갔다고 한다.⁶³⁾

작품 말미의 '나중에'라는 팽조가 신선이 된 시기는 '호랑이 발자국' 이후가 아니라, '옛날에 이 곳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하면 반드시 곧바로 영험이 있었다'는 언급 이전이다. 800여 세 이후 성선하여 선경에서 거주하는 신선 팽조는 한해에 시달리며 아사를 걱정하는 세속 백성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하자, 감응하여 강우를 시도한다. 도사 시절 팽조가 양생에서 시도하던 '도인·행기술'은 기혈과 호흡 순환을 촉진하는 도술이고 강우는 지상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이다.

63) “彭祖者，殷大夫也。…歷夏至殷末，八百餘歲。…善導引行氣。歷陽有彭祖仙室。前世禱請風雨，莫不輒應。…祠訖，地即有虎迹，云後昇仙而去。”，유향, 김장환 옮김, 『彭祖』, 위의 책, 98쪽.

이 두 사례에서 단적으로 선경은 농경이 순조로운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족애

앞에서 간접 살핀 대로 「子英」의 자명은 신선이 되었으나 1년에 한 차례 70년을 한 결 같이 세속 옛집으로 귀환하여 가족들과 재회하며 정리를 나눈다. 신선도 어디까지나 인간이라는 사실이 환기되면서 ‘가족애’가 부각되고 있다. 부부의 사랑과 부모 자식의 사랑은 가정이 유지하여야 하는 가치인데, 그러나 세속에는 그런 가족애가 결핍된 가정이나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어 그 구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와 의도가 함축되어 있다. 「陵陽子明」에서 신선 자명은 세속으로 돌아와 ‘우애’를 구현한다.

능양자명은 ... 선계에서 ... 하루는 흰 용을 낚아 올렸다. 자명은 두려워 낚싯바늘을 빼고 절한 뒤 놓아주었다. ... 그 후 흰 고기를 낚았을 때 그 뱃속에 글이 들어있었는데, ... 자명은 마침내 황산으로 올라가 오색의 석지를 캐서 물을 끓여 복용했다. 3년 뒤 용이 와서 그를 맞이해 가 100여 년 동안 능양산 위에 머물렀다. ... 자명은 산 아래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산 킁덕으로 올라오게 한 뒤 이르길, “계곡에 사는 자안이 틀림없이 와서 자명의 조차가 있는지 여부를 물을 것이오.”라고 하였다. 그 후 20여 년 뒤 자안이 죽자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거두어 석산 아래에 장사 지냈다. 누런 학이 날아와 그의 무덤 옆 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자안을 부르며 울었다고 한다.⁶⁴⁾

자안은 이름과 관계로 보아 자명과 가족이면서도 뜻을 같이하는 선도 종사자인데, 자명은 성선을 성취하였으나 자안은 결국 실패하였다. 후속 노력이 있었지만 자명은 자신의 조차(釣車) 덕분에 흰 용을 낚을 수 있었고 이 일이 단서가 되었기에, 좌절을 거듭하는 자안이 언젠가는 그 조차를 찾아 능양산으로 올 것을 알아

64) “陵陽子明者, ...於旋溪, 釣得白龍, 子明懼, 解鉤, ...後得白魚, 腹中有書, ...三年, 龍來迎去, 止陵陽山上百余年, ...大呼下人, 令上山半, 告言: “谿中子安當來, 問子明釣車在否.”後二十余年, 子安死, 人取葬石山下, 有黃鶴來, 棲其塚邊樹上, 嗚呼子安云”, 「陵陽子明」, 같은 책, 245-246쪽.

작중에서 그런 예언을 하며 기대도 한 것이다. 자안이 자명의 조차를 찾았는지 찾지 못하였는지 그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자안은 결국 성선에 실패하고 사망하였다. 자안의 무덤가에서 우는 학이 자명의 변신인지 자명이 대리로 파견한 영물인지 모호하지만, 자명은 신선이 되었어도 세속에 두고 온 혈친의 소망을 공감하며 그 성취를 기원하다가 자안의 실패에 직면하여 동정의 우애를 울음으로 농도 짙게 토로하고 있다. 다음 「목우木羽」는 독자들의 선경 상상 전개에도 유력한 작품인데, 신선 목우는 세속에 돌아와 ‘효도’를 구현한다.

목우는 ... 모친은 빈한하여 산과 일을 하였다. ... 붉은 두건에 큰 관을 쓴 사람이 ... 아이를 지키면서 말하길 “이 분은 사명군이시오. 마땅히 그대의 은혜에 보답할 것이니 그대의 아들 목우를 득선케 할 것이오”라고 하였다. ... 아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밤중에 거마가 그 아이를 맞이하러 왔다가 데려가면서 모친의 집에 들러 부르길 “목우! 목우! 어자(御者)가 되어 주오”하고는 마침내 함께 떠나갔다. 20여 년 뒤 학이 날마다 두 척이나 되는 물고기를 물고 와서 모친 집의 문 위에 놓아두곤 했다. ... 그렇게 30년이 지난 뒤에야 학은 오지 않았다. 모친은 100살까지 살고 나서 죽었다.⁶⁵⁾

은혜와 보은의 순환을 배경으로 효도가 크게 부각되는 작품이다. 사명군(司命君)이 세속에 재래하는 방식은 출산방식이며, 이 과정에서 산파의 시혜가 있었고, 그 보답으로 산파의 아들 목우는 득선하며, 신선 목우는 세속의 모친을 오래 봉양한다. 목우는 세속의 모친을 20년이나 잊지 않았고, 학이 목우의 변신인지 목우가 파송하는 영물 사자인지 모호하지만 매일 목우는 모친에게 물고기 헌상을 30년이나 지속한다. 나아가 모친은 100세 장수하는데, 이 혜택은 사명군의 보답이다. 다시 주목할 것은 세속 인간의 수명과 생사를 관장하는 사명군이 천상 선경에 있으며, 그 사명군도 효도를 장려한다는 메시지이다. 「목우」의 이런 국면은 선경의 위상과 효도를 동반 고조시키고 있다. 효도는 자애와 달리 성의와 노력 없이 가능하

65) “木羽者, …母貧賤, 主助產, …大冠赤幘守兒言: 此司命君也, 當報汝恩, 使汝子木羽得仙, …所探兒生年十五, 夜有車馬來迎去, 遂過母家, 呼: “木羽, 木羽, 爲御來.” 遂俱去. 後二十余年, 鶴雀且銜二尺魚, 著母戶上, …三十年乃沒去, 母至百年終.” 「木羽」, 같은 책, 251-252쪽.

지 않아 세속의 삶에서 그 구현이 쉽지 않다는 함축이 개입되어 있고, 선도는 효도도 촉진하여 세속을 승화하려 한다는 지향을 이 작품에서 검출할 수 있다. 이상 검토로 선경은 가족애가 강력하게 구현된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다.

(3) 불의(不義) 권력 부재

다음 「師門」에서 우리는 선경의 신선이 세속을 하감하며 세속의 비리에 무심하지 않고, 가해자를 징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문은 소부의 제자이다. 역시 불을 다루는 데 능숙했으며 복숭아와 오얏의 꽃을 먹었다. 하나라 공갑의 용 사육사가 되었는데 공갑은 자신의 뜻대로 용을 부릴 수가 없자 사문을 죽여 교외 들녘에 묻었다. 어느 날 아침 비바람이 몰려와 그를 맞이해 갔는데 끝나고 보니 산의 나무들이 모두 불에 났다. 공갑은 사문을 위한 사당을 짓고 기도한 뒤 돌아오다가 도중에 죽고 말았다.⁶⁶⁾

스승 소부를 추종하며 선도에 종사하던 사문을 하나라 군주 공갑이 부당 불의하게 죽이자 그 권력의 횡포를 파악하고 분노한 선경의 신선은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는다. 무덤 속 사문을 부활시키고 '비바람'을 영물로 동원하여 사문을 선경으로 데려오고, 무덤 근처 산의 나무들을 불태워 세속의 관련 무리에게 경고하며, 사죄하는 공갑을 끝내 급사로 징벌한다. 이 국면에서 그 대조로 주의할 것은 사문과 소부가 시정의 서민이라는 사실이다. 선경과 선경에서 거주하는 신선의 권능이 서민의 관점에서 형상화되는 것은 『열선전』 선화의 발원이 민간 서민계층이며 그들의 선경 희구는 오만한 권력과 그 핍박에 맞서 그 대리 징벌을 기원하는 심정에서 비롯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징벌을 수행하는 선경의 신선이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사문의 스승인 '소부'일 것이다. '사문은 소부의 제자이다'라는 이 작품 모두의 문장에 기인한 추정이다. 「嘯父」에서 소부는 대체

66) “師門者，嘯父弟子也。亦能使火，食桃李葩。爲夏孔甲龍師，孔甲不能順其意，殺而埋之外野。一旦風雨迎之，訖則山水皆焚。孔甲祠而禱之，還而道死。”，「師門」，같은 책，90-90쪽.

로 귀족 계층으로 추정되는 '호사자들'과, 선도에 대한 그들의 경박한 태도로 갈등을 일으키는 '신발 수선공'이며, 불을 잘 다루는 재능으로 천상 선경에 입경하였다.⁶⁷⁾ 「師門」에서 선경 신선의 분노가 '산의 나무들이 모두 불에 탔다'로도 표현되었는데 이는 소부의 그 불 재능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服闋」에서는 세속에 재래하기도 하는 선경의 신선이 세속을 하감하며 징치하는 사례가, "(복려가) 하루는 머리를 깎고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모습이 훨씬 늙어 보였다. 방장산의 묘당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 나온 벌을 받은 것이라 대답하였다"⁶⁸⁾라고 형상화되어 있다. 이상 검토로 선경은 세속과 달리 불의한 권력이 거세된 이상향, 권력이 정의롭고 공정한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다.

(4) 재해 예방

책언이지만 자연 재해는 세속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재난이며 막대한 우환거리이다. 「平常生」에서 신선 평상생은 홍수를 문제시한다. 결문산에서 "평상생이 여기 있다고 크게 외치고는, 다시 말하길 '홍수와 비는 5일 만에 틀림없이 멈출 것이다'라고 하였다"⁶⁹⁾에서 알 수 있듯, 신선 평상생은 계속되는 장마와 홍수에 시달리는 세속 사람들에게 그 재난이 5일 만에 멈춘다고 예언한다. 지속되는 낙망과 공포를 단절시키고 재기의 희망과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언행이며 세속 사람들을 동정하고 위로하는 의도도 주목된다. 다음 「騎龍鳴」에서 신선 기룡명도 홍수에 관련된 예언을 한다. 홍수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며 그 피해를 예방하려 한다.

기룡명은 ... 스무 살 때 연못 속에서 용 새끼를 잡았는데, 10여 마리가 마치 궁을 지키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먹이를 주어 기르고 초막을 지어 지켜 주었다. 용들이 성장하자 하나씩 떠나갔다. 50여 년 뒤에 홍수가 그 초막을 쓸어갔는데, 기룡명이 어느 날 용을 타고 혼정으로 내려와서 말하길 "... 이 곳 사람들은 500리 밖으로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될

67) 주 21) 참조.

68) 주 27) 참조.

69) 주 35) 참조.

것이다”라고 하였다. 믿은 자들은 모두 떠나갔지만, 믿지 않은 자들은 요사하다고 생각했다. 8월이 되자 과연 홍수가 일어나 죽은 자가 만 명을 헤아렸다.⁷⁰⁾

홍수로 사라졌던 기룡명이 자신이 거주하던 혼정으로 용을 타고 내려온 양상에, 기룡명이 길러 영물로 성장한 용들의 보은으로 기룡명이 성선하였다는 함축이 있다. 신선 기룡명은 홍수를 예언하여 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속으로 귀환한다. 홍수와 같은 자연의 재해로부터 안전한 삶을 선도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회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홍수 없는 세상, 홍수가 발생하더라도 미리 피할 수 있는 세상이 곧 선경이다.

(5) 질병 치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邗子」의 한자는, ‘마침내 산 위에 머물러 살면서 때때로 산을 내려와 그 종족을 지켜 주었다’고 하였다. 성선 이후 그는 자신이 살던 옛 마을을 거의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한자가 무엇으로부터 종족을 보호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검토한 대로 작중 앞 문맥의 ‘부적과 약에 관련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세속은 불온하며 질병이 야기되는 부정한 기운이 서린 시공이다. 「東方朔」에서도 신선 동방삭은 굳이 세속에 와 약을 판다.

동방삭은 ... 무제 때 상서하여 정책을 논함으로써 낭에 임명되었다. 소제 때 이르러 당시 사람들 중에는 동방삭을 성인이라고 여기는 자도 있었고 범인이라고 여기는 자들도 있었다. 심원하여 알기 어렵거나 천근하여 알기 쉬운 행동을 하곤 하였는데 ... 선제 초년에 이르러 낭의 관직을 버리고 어지러운 세상을 피하여 관사에 두건을 놓아둔 채 바람을 타고 표연히 사라졌다. 나중에 회계에 나타나 약을 팔았다. 식자들은 동방삭을 목성의 정령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⁷¹⁾

70) “騎龍鳴者, …年二十, 於池中求得龍子, 狀如守宮者十餘頭, 養食, 結草廬而守之. 龍長大, 稍稍而去, 後五十餘年, 水壞其廬而去, 一旦騎龍來渾亭下, 語云: “馮伯昌孫也, 此間人不去五百里, 必當死.” 信者皆去, 不信者以爲妖, 至八月, 果水至, 死者萬計.”, 『騎龍鳴』, 유향, 김장환 옮김, 위의 책, 188-189쪽.

동방삭은 난세를 혐오하며 관직을 상징하는 두건을 버리고, 영물인 바람에 의지하여 세속을 떠난다. 그렇게 결연하게 떠나갔던 그는 그러나 세속으로 돌아와 회계에서 약을 판다. 새삼스럽지만 이러한 양상에는 각종 질병이 횡행하는 세속과 그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들의 삶이 단적으로 투영되어 있다. 모든 활동으로부터 질병은 인간을 위축시키고 일상의 삶을 조락시키기에 인간의 행복을 저해하는 악(惡)이다. 특히 전염병은 그 정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집단 공포의 진원이었고, 그 치료는 일상의 의지와 노력을 초월하는 비상한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 치료약을 백성들이 선도의 산물로 여기거나 선도 종사자들이 그렇게 자임하며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찍이 동방삭이 무제에게 건의한 정책은 그의 후일 매약 활동과 관련시켜보면 질병 치료와 유사한 위민의 대책이었을 것이다. 이상 검토로 보아 선경은 모든 질병이 치료되거나 질병이 없는 이상향이다.

(6) 마음의 정화

다음 「蕭史」에는 세속 사람들의 정서를 고양해 그 마음을 정화하는 음악이 부각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 공작 백학과 봉황을 사람의 처소로 초치하는 통소의 심미성은 사람들의 내면에서도 작용하여 사람들의 화해(和諧)를 이끌 수 있다는 취지가 함축되어 있다.

소사는 ... 통소를 잘 불어 공작과 백학을 뜰에 불러들일 수 있었다. 목공에게는 자를 농옥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녀가 그를 좋아하자 목공은 마침내 딸을 소사에게 시집보냈다. ... 몇 년이 지난 뒤 농옥이 통소로 봉황의 소리와 비슷하게 통소를 불었더니, 봉황이 그 집 지붕에 날아와 머물렀다. 목공이 그들에게 봉대를 지어주자, 부부는 그 위에 머물면서 내려오지 않다가 어느 날 함께 봉황을 따라 날아가 버렸다. 그래서 진나라 사람들이 옹궁 안에 봉녀사를 지었는데, 때때로 통소 소리가 들리곤 하였다.⁷²⁾

71) “東方朔者…武帝時，上書說便宜，拜爲郎。至昭帝時，時人或謂聖人，或爲凡人，作深淺顯默之行…至宣帝初，棄郎以避亂世，置幘官舍，風飄之而去。後見於會稽，賣藥五湖。智者疑其歲星精也”，「東方朔」，같은 책，178-180쪽.

소사를 따라 농옥은 통소 연주에 분발하고 천상 선경의 봉황을 감응시켜 초치할 정도로 대성하며, 부부는 마침내 성선을 성취하여 천상 선경에 입경한다. 하지만 소사와 봉옥은 세속으로 회귀하였고, 봉녀사에서 때때로 통소를 연주하여 세속 사람들에게 들려준다. 이는 단순한 연주가거나 자기 증명이 아니라 세속 사람들의 삶에 기여하는 정화의 행위이다. 그녀의 통소 연주가 한편 그녀의 양생에 해당하였듯 그녀가 세속에 돌아와 연주한 통소 소리는 세속 사람들의 정서를 순화하여 마음을 정화한다. 이는 선도가 기약하는 인간성 고양의 한 사례이다. 세속 사람들이 봉녀사를 세운 것도 부부의 신묘한 재능을 기린다고보다는 음악의 심미성이 자신을 포함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하여 거칠고 난폭한 세속을 정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염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 검토로 선경은 음악으로 누구나 마음을 정화하는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다.

(7) 이용후생

「園客」에서 ‘어떤 아리따운 여자’ 신선은 세속에 와서 양잠술을 시현하고 전파한다.

원객은 ... 용모가 준수하고 성품이 어질어 많은 사람들이 딸을 시집보 내려 하였으나, 원객은 끝내 장가들지 않았다. 항상 오색의 향초를 심어 놓고 수십 년 동안 그 열매를 먹었다. 어느 날 오색 나방이 그 향초 나무 끝에 앉았는데, 원객이 그 나방을 잡아 베를 깔아주었더니, 그곳에 뽕누에를 낳았다. 누에를 칠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아리따운 여자가 밤에 찾아와서 자칭 원객의 아내라고 하면서 누에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였다. 원객은 그녀와 함께 누에를 길러 120개의 꼬치를 얻었는데, 모두 향아리만큼이나 컸으며 고치 하나를 켜는데 60일이 걸려서야 비로소 끝을 내었다. 다 마치고 나서 함께 떠났는데 그 소재를 알 수 없었다. 제음 사람들은 대대로 뽕누에에게 제사 드리고 사당을 세웠다.⁷³⁾

72) “蕭史者, …善吹簫, 能致孔雀白鶴於庭. 穆公有女, 守弄玉, 好之, 公遂以女妻焉. …居數年, 吹似鳳聲, 鳳凰來止其屋. 公爲作鳳臺, 夫婦止其上, 不下數年, 一旦皆隨鳳凰飛去. 故秦人爲作鳳女祠於雍宮中, 時有簫聲而已”, 「蕭史」, 같은 책, 151-153쪽.

73) “園客者, …姿貌好而性良, 邑人多以女妻之, 客終不取. 常種五色香草, 積數十年, 食其實. 一

원객이 수십 년 기르며 식용하는 향초에 뽕누에를 낳아, 이후 신이한 전개(전개) 단초가 되는 '오색 나방'은 지상의 보통 나방이 아닐 것이며, 원객의 오색 향초에 얽은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오색 나방은 그 자체의 형용도 비범할 뿐만 아니라, 문맥으로 보아 준수하고 어질며 양생에 전념하는 원객을 이미 알고 주목하던 선경의 신선이 원객을 도우려고 특별히 파송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 은 '누에를 칠 때 때맞추어 찾아온 신비한 '어떤 아리따운 여자'로 하여 강화된다고 하겠다. '어떤 아리따운 여자는 문제 인물이다. 원객과 대등한 주인공이면서 작중 에서 그 정체(正體)가 밝혀지지 않고 어떤 추정을 유도하는 단서도 없다. 하지만 '오색 나방'과 '항아리만큼' 큰 '고치 120개'와 그 성취 직후 떠나가는 종국을 감안하면, 신선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나아가 '어떤 아리따운 여자' 신선이 '나방'을 파송하였 을 수도 있고, 심지어 '나방'은 '어떤 아리따운 여자' 신선의 변신이었을 수도 있다.⁷⁴⁾ 작중 행간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하여야 할 것은 신선의 그 비범한 양잠술이 제음의 서민들에게 전파되어 후생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사실이다. 그 국면이 직접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음 사람들은 대대로 뽕누에에게 제사 드리고 사당을 세웠다'는 말미 언급에 함축되어 있다. 민생을 배려하는 이러한 신선의 행위는 선 도의 의의가 자기승화 이상(以上)이며, 위민의식의 이상(理想)을 지향한다는 측면을 다시 입증한다. 이상 검토로 보아 선경은 양잠술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후생 이 도모된 이상향이다.

(8) 선도 구현

「谷春」에서 신선 곡춘은 세속에서 선도를 신빙하게 하기 위해 재래한다.

巨, 有五色蛾, 止其香樹末, 客收而薦之以市, 生桑蠶焉. 至蠶時, 有好女夜至, 自稱客妻, 道蠶狀, 客與俱收蠶, 得百二十頭繭, 皆如甕大, 繅一繭, 六十日始盡. 訖則俱去, 莫知所在. 故濟陽人世祠桑蚕, 設祠室焉.”, 「園客」, 같은 책, 192-193쪽.

74) 변신술은 「脩羊公」에서 등장한다. 수양공은 선도 종사를 게을리하면서 선술을 배우려고 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을 경원시하는 무례한 권력자를 양으로 변신하여 경고한다. 같은 책, 161-163쪽 참조.

곡춘은 역양 사람이다. 성제 때 낭을 지냈다. 병으로 죽었는데 시체가 식지 않아 가족들이 부고를 내고 초상을 치르면서도 감히 관에 못을 박지 못했다. i) 3년 뒤에 다시 관건을 쓰고 역양현의 성문 위에 앉아 있자 현민들이 크게 놀랐다. 집안사람들이 그를 맞이했으나 따라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곡춘의 관을 열어 봤더니 옷만 있고 시체는 없었다. ii) 곡춘은 3일 밤을 성문 위에서 머문 뒤 장안으로 가서 장안성의 황문 위에 머물렀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맞이하려고 따라오자 다시 떠나 태백산으로 갔다. iii) 산 위에 사당을 세웠는데, 곡춘은 때때로 그 사당에 와 머물면서 자고 가곤 했다.⁷⁵⁾

i)에서 곡춘은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고 계속 역양현 성문에 걸터앉아 있는데, 현민들에게 자신이 성선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일 것이다. 성문은 사람들이 계속 왕래하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곡춘이 가족들이 영접하며 권유하여도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던 이유는 ii)에서 알 수 있듯, 3일 밤을 그 성문 위에서 지내려 하였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건 곡춘이 전혀 원하는 바가 아닌 것이다. 같은 취지로 곡춘은 장안으로 가서 장안성의 황문에서 머무른다. 수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성선과 선도를 전파한다. 도성의 성문은 전국 각지의 사람들도 오고가기에 소문이 전국에 유포될 것이다. 곡춘의 최종 목적을 iii)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곡춘은 자신의 성선을 인지하고 추종하려는 사람들을 이끌어 태백산으로 가며, 사람들은 그 산에 사당을 세운다. 신선 곡춘이 세속에 재래한 이유는 자신의 성선을 입증하고 선도를 전파하려 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⁷⁶⁾ 이상 검토로 보아 선경은 특히 '부활'을 위시, 성선 관련 선도가 기본으로 신앙되는 이상향이다.

75) 『谷春』, 같은 책, 205/206쪽, 주 37) 참조.

76) 권영애, 「열선전의 반동 인물과 주인공의 세속 활동 모티프 고찰」, 『중국학논총』 제43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4, 79~80쪽 참조.

4. 결론

픽션은 있는 세계를 재현하려는 욕구에서 유래하기도 하지만, 있어야 할 세계를 창조하는 의지에서 발원하기도 한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픽션의 본질일 것이며, 신화의 선경은 바로 작가가 자신을 포함, 인간의 그 보편적인 꿈을 반영한 시공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고찰이 수행되지 않은 『열선전』의 선경을 『열선전』의 작품들에서 관련 국면을 모두 취합하여 조명하고 관련 추정도 시도하면서 탐색해보았다. 먼저 선경의 소재 여하에 관련된 작품은 70편 중 24편이었다. 기존의 지적과 달리 선경은 천상, 산, 섬뿐만 아니라, '강'과 '세속'에도 있었다. 강 선경은 산과 강이 병렬되는 관행만으로도 작가들이나 독자들이 잘 상상할 수 있는 선경이었으나 신선삼품설의 영향을 받거나 관련 작중 정황이 애매하여 비정되지 못한 듯하다. 「찬」의 찬자가 주인공의 성선을 시해방식으로 처리하며 선경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琴高」에서 강 선경 추정이 가능하였고, 「江妃二女」「呂尙」에서도 가능하였다. 한편 세속 선경을 「平常生」과 「谷春」에서 추정하였는데 쟁점이 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죽음에서 부활한 시해 신선이 직면하는 공간이 신선에게는 나뉠대로 선경이고, 또 진행되는 선경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가능한 추정일 것이다. 천상 선경 15편, 명산 선경 2편, 해중 섬 선경 2편, 강 선경 3편, 세속 선경이 2편이었다. 이러한 수치에서 알 수 있듯 『열선전』의 시대는 천상 선경이 더 동경되던 시대였다.

『열선전』에서 유일하게 선경이 구체 형상으로 등장하는 작품은 「邗子」였고, 그 선경을 살펴본 결과, 『열선전』 선경 체제의 기본을 7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그중 '둘째, 선경은 세속의 궁궐과 같은 구조이고, 세속과 같은 일상이 있으며, 선경에서 거주하는 신선들에게는 위계와 직임이 있다'가 가장 주목된다. 선경은 불사(不死)를 성취한 고상한 신선들이 거주하는 시공이긴 하지만 세속과 다른 세계가 아니었다. 이식이라 할 정도로 당시 현실의 봉건체제가 반영되어 있었다.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이 양상을 상상과 철학의 부진이라고 하기에는 저어된다. 부적이든 함과 약이 세속의 보통 서민이 아니라 하필이면 제왕과 백성 사이에서 제왕의

이념을 구현하는 관료, 성도 현령 교군에게 전달되는 모습까지 참조하면, 이 체제는 막스 베버가 지칭한 ‘가산관료제(家産官僚制)’⁷⁷⁾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현실 적용과 그 성패를 떠나 그 자체 고대의 지치(至治)에 근거를 둔 이상국가의 체제이다. 작가의 이러한 선택은 세속 체제의 단순한 반영이나 서민의 견지에서 세속의 권력을 흡수한 결과가 아닐 것이다. 위민의 왕도 이념을 존중하고 그 이상 실현을 기원하는 의도의 적용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민란과 봉기에서도 연속되고 19세기말 태평천국에까지도 중국에서는 같은 지향이 지속된다. 그만큼 그 이념과 이상이 중국인들에게 최선이었다고 하겠다. 한편, 선경의 신선들은 세속에 관심을 갖고 세속의 상황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邗子」에서도 확인하였다. 선경의 신선은 개와 한자를 불러들이고 우선 한자를 사역시켜 치어와 부적, 그리고 약을 세속에 전달한다. 치어는 세속과 선경의 소통에 필요한 영물의 어린 모습이며, 약은 병고로 고통 받는 세속 사람들에게 필요하며 선도의 매력인 장수의 상징이기도 하다.

「邗子」에서 고찰한 7 사항을 『열선전』 선경 체제의 윤곽으로 삼고, ‘선경의 신선들은 세속의 환난과 고통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구제하려 한다’는 넷째 사항을 주목하며, 선경에서 거주하는 익명 신선들과 선경에서 세속으로 돌아온 신선들이 문제시하며 극복하려는 세속의 사안이 무엇이며, 관련 행동과 의도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그것이 이미 선경에서 실현된 선경의 가치라고 간주하

77) 미이시 켄키치는 막스 베버의 가산관료제를 ‘(예로부터 존재하는 질서의 지배권력의 신성성을 믿는) 전통적 지배’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점에 선 주인은 아버지로서의 배려를 갖는 유덕한 황제이며 하늘의 아들(天子)로서 이 지상을 통치한다. 황제는 신성한 전통(구체적으로는 요순공맹으로 이어진 문(文)의 전통)의 계승자로서 신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실행자로 등장한다. 전통의 계승과 복지정책, 이 두 가지가 가산관료제국가의 정통성의 근거이다. ... 이 황제 밑에 황제의 가신 즉 전 제국을 관리하는 관료·행정 간부가 있다. ... 옛 성현의 뜻이 들어있는 사서오경에 밝아 지적 엘리트이다. 그들은 과거 시험의 최종 관정자인 황제에게 개별적인 충성을 서약한다. ... 그 아래에 방대한 수의 일반 대중이 농상공업에 종사하면서 살고 있었다. 저들은 유덕한 군주와 관료에 의해 인도되는 정치적 객체로 <배움>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 품위가 없는 우민으로 간주되었으며 역대 왕조의 말기에 빈발한 농민반란은 이 우민들이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회복하자는 운동이었으며 이 운동의 바탕에는 억압받는 자의 놀랄만한 리젠트먼트가 들어 있었다.”, 미이시 켄키치(三石善吉), 최진규 역, 『중국의 천년왕국』, 고려원 1993, 12-14쪽 참조.

였다. 이 관점은 '신선'은 '인간의 승화'이고 '영물'은 '동물의 승화'이기에 선경은 '세속의 승화'라는 전제에서 기인한다. 신선은 인간과 애초부터 본질이 다른 신과 같은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연속으로서 '승화된 인간'이며, 영물도 동물의 연속으로서 '승화된 동물'이기에, 선경 또한 세속의 연속으로서 '승화된 세속'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승화된 세속'은 신선들이 문제시하는, 사람의 삶을 억압하거나 피폐하게 하는 문제가 제거되거나 해소된 새 시공이다. 검토 결과, '순조로운 농경', '가족애', '불의 권력 부재', '재해 예방', '질병 치료', '마음의 정화', '이용후생', '선도 구현', 8 가치로 정리할 수 있었다. 선경에는 구현되어 있지만 세속에서는 아직 혹은 구현되지 않고 있는 가치들이다. 환언하면, 선경의 가치, 세속에서 구현되어야 할 선경의 가치들이다.

선경은 천국, 극락, 잔나와 다르다. 천국, 극락, 잔나는 세속과의 비연속을 전제로 한 사후 세계이지만, 선경은 세속과 연속되면서도 차원을 달리하는 세계이다. 천국, 극락, 잔나는 '삶은 순간이고 인간은 결국 죽는다'를 전제로 하고, 선경은 '인간은 자신을 승화할 수 있고, 승화한다면 죽지 않을 수 있다'를 전제로 한다. 선경은 또 기존의 이상향 유형인 밀레니움(천년왕국)·유토피아·아르카디아와도 체제가 다르다. 선경을 이상향의 새로운 유형으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⁷⁸⁾

그런데 우리는 선경이 무엇보다도 불사의 시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존 그레이는 불사의 욕망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78) 미이시 첸키치는 인류의 이상향을 밀레니움(천년왕국) 유토피아 아르카디아 셋으로 유형화하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원형으로 하는 유토피아는 지식인의 체제에 대한 이의 신청, 이상국가론, 정태성, 확실성 및 모성원리에 선 찬란한 도시 등의 표준을 가지며, 베르기우스의 『목가』를 원형으로 하는 아르카디아는 지식인의 체제에 대한 비판, 전원의 아름다움, 인간의 소박함, 무정치성, 허구성, 목가적 황금시대 등의 표준을 가지고, 억압받는 계급의 혁명론으로 요약할 수 있는 천년왕국(밀레니움)은 유토피아나 아르카디아와는 달리 황금의 도시, 또는 지극히 풍요로운 농촌으로 묘사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같은 책, 14-16쪽 참조) 『열선전』의 선경을 셋 이외의 유형으로 지적하거나 세 유형 중 어느 하나에 소속시키지 않았다. 『열선전』의 선경을 위의 표준으로 제시한다면, 시공에 예측되는 인간의 한계 극복, 인간의 욕망(성욕 재육) 절제, 질병과 재해 극복, 이용후생 예찬, 효와 덕 장려, 지식인의 체제에 대한 비판(민중을 억압하는 권력의 횡포 혐오 및 견제), 이상국가론(가산관료제 완성), 현세적(세속의 선경화)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열선전』의 선경은 별도 유형의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화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아무 것도 죽지 않으면 아무 것도 태어나지 않는다. 영원한 존재는 영원한 고요함이다. 무덤 속의 영원한 평화다. 불멸을 추구하는 자들은 혼돈에서 탈출할 길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그들 자체가 혼돈의 일부다. 자연적인 혼돈이든 신성한 혼돈이든 말이다. 불멸은 빈 스크린에 흐릿한 영혼이 투사된 것일 뿐이다.⁷⁹⁾

이 주장은 불사를 기초로 하는 선경지향 욕망과 대비하여 검토할 만하다. 그레이의 생각은 기원 전후 중국의 선경 관련 작품에 반영된 당대 백성의 희망과 욕망을 비판할 수 있는 주장이 되기에는 무리라고 여겨진다. 『열선전』에서 진시황 같은 성취한 자의 욕망에서 선경이 주목되기도 하지만 제왕들과 상층 인물들의 선경 입경은 지난하게 그려져 있거나 중도에 실패하며, 대부분 하층 서민들이 이기(利己)에서 벗어나 재능과 덕량으로 이웃과 사회에 기여한 공적을 쌓아 선경에 입경하고 있다. 약육강식의 전국 시대, 전쟁과 질병, 기아와 천재지변, 권력의 횡포와 비리가 만연한 당시 중국의 쟁패 상황을 고려하면 선경 회구야말로 반드시 있어야 할, 현세의 제반 문제를 비판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자 나은 사회로 가는 에너지였다. 그레이의 문제제기는 살아서 기득권을 누리고 삶 이후에도 누리려고 하는 이들에게 경책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선경은 현세에서 욕망을 성취한 자가 현세 이후에도 그 욕망을 유지하려는 단순한 장생불사의 공간이 아니다. 성선에 성공하여 선경에 입경하는 목적을 이룬 그들은 세속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오기도 한다. 선경은 불사를 비롯 모든 소망이 이루어진 낙원이다. 하지만 신선들은 그 낙원에 안주하지 않고 떠난 세속에서 자신과 같은 서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갖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망각하지 않고 세속을 정화하고 그들의 삶을 고양하려는 의지를 실천한다.

이상향을 지향하는 희망은 역대 인류가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 이 희망은 강력하고 절대에 가깝다. 『열선전』의 선경 관련 검토에서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인간 보편의 희망과 욕망, 한계와 일탈도 성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열선전』의 신선들이 세속을 승화시키기 위해 맞섰던 세속의 문제들을 주목하면서, 그들이 애초부터

79) 존 그레이, 김승진 옮김, 『불멸화 위원회』, 서울: 도서출판 이후, 2012, 273-274쪽.

소원하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그들의 선경이 어떤 가치와 질서로 이루어져 있었는지 그 대강이나마 알 수 있었다. 『열선전』의 선경은 역대 독자들이 하여금 현실을 각성하고 개선의 비전을 제기할 수 있게 하였을 것이다. 우리 미래 사회의 체제와 가치를 논의하는 담론에서도 본고의 검토가 한 작은 참조가 되기를 기원한다.

〈參考文獻〉

- 유향 지음, 김장환 옮김, 『열선전』, 서울: 예문서원, 1996.
- 葛洪, 昔原台 역주, 新譯 『抱朴子』 내편 1, 서울: 서림문화사, 2016.
- 葛洪, 昔原台 역주, 新譯 『抱朴子』 내편 2, 서울: 서림문화사, 2015.
- 葛洪, 昔原台 역주, 新譯 『抱朴子』 외편 1, 서울: 서림문화사, 2013.
- 葛洪, 昔原台 역주, 新譯 『抱朴子』 외편 2, 서울: 립문화사, 2016.
- 葛洪, 昔原台 역주, 新譯 『抱朴子』 외편 3, 서울: 서림문화사, 2015.
- 한국도가도교학회 엮음, 『포박자연구』, 서울: 도서출판 사철, 2016.
- 李昉 등 모음, 김장환 외 옮김, 『태평광기』 1, 2, 서울: 학고방, 2000.
- 孫遜, 『中國古代小說與宗教』, 상해: 복단대학출판사, 2000.
- 미이시 겐키치(三石善吉) 지음, 최진규 번역, 『중국의 천년왕국』, 서울: 고려원, 1993.
- 존 그레이, 김승진 옮김, 『불멸화위원회』, 서울: 도서출판 이후, 2012.
- 리처드 할러웨이, 이용주 옮김, 『세계 종교의 역사』, 서울: 소소의 책, 2019.
- 오강남, 『세계의 종교 둘러보기』, 서울: 현암사, 2019.
- 미르치아 엘리아데, 박태규 옮김, 『세계종교사상사』, 서울: 이학사, 2017.
- 李丰楙, 『仙境与游歷-神仙世接界的想象』, 北京: 中華書局, 2010.
- 俞汝捷, 『幻想和寄託的國度—志怪傳奇新論』, 臺北: 淑馨出版社, 1991.
- 진정염·임기담, 『중국의 유토피아 사상』, 지식산업사, 1993.
- 顧頡剛, 「『庄子』和『楚辭』中昆侖和蓬萊兩個神話系統的融合」.
- 洪樹華, 「魏晉南北朝志怪小說的“洞穴境”意象」, 『山東大學學報』(哲學社會學版 雙月刊), 2005. 第2期.
- 胡銳黃勇, 「道教游仙小說的成立及仙境思想」, 『西北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24卷 第2期, 2004. 6.
- 李 晟, 「論仙境信仰產生的思想根源」, 『四川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總第151期, No.4 2007.

- 李春輝·李娟, 「人間“仙境”的時代精神」, 『內蒙古電大學刊』 第6期, 2011.
- 徐翠先, 「唐傳奇仙境描寫的文化學考察」, 『江蘇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13卷 第4期, 2011. 7.
- 김원동, 「중국 중세 선경설화의 전개」, 『동아문화』,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95
- 오상훈, 「중국 고대의 선경(仙境)」, 『문예미학』 제7호.
- 張瑞嫻, 「多元文化影響與蓬萊仙境信仰的形成」, 중남민족대학 석사학위논문, 2012년, 7쪽.
- 이광철, 「위진시대 유선시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14집, 중국어문학회, 2000.
- 이광철, 「중국 고대의 선경(仙境) - 중국 고대 시공간(時空間)의 속류적 한 해석」, 『민족미학』 제10호, 2011. 11.
- 정선경, 「선경설화의 구조적 특징에 관한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제27호, 2004.5.
- 장범성, 「魏晉時代 理想鄉觀 研究」, 『아시아문화』 제11호.
- 권영애, 「열선전의 반동 인물과 주인공의 세속 활동 모티프 고찰」, 『중국학논총』 제43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4.
- 권영애, 「열선전 영물의 정체와 형상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37집, 한국중어중문학 2005. 12.
- 권영애, 「『열선전』 영물의 내원과 그 지속과 변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39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6.12.

〈Abstract〉

The Study on *XianJing*(仙境) in *LieXianZhuan*(列仙傳)

Kwon, Young-Ae

Fiction is originated from the desire to recreate the world already exist, but also is originated from the will to create the desired world. The latter is the essence of fiction, rather than the former, and XianJing(仙境) of stories of Immortals is the time and space that the author reflects the universal dream of humans, including himself.

The XianJing in the works of 『LieXianZhuan』 are analyzed. There were 24 out of 70 works related to the XianJing. As a result of analyzing of the XianJing, it was not

only in the Heaven, mountains, and islands, but also in river and secular worlds: there are 15 works of XianJing in the heaven, 2 works in mountain, 2 work in underwater islands, 3 works in river, and 2 works in secular world. According to the figure, the era of 『LieXianZhuan』 was when the XianJing in the heaven are yearned.

It was possible to derive the basic system of XianJing from “HanZi(稗子)”, the only work that embodies the XianJing. First, while the XianJing and the secular world are in different dimension, secular people can enter the XianJing through extraordinary paths or by sacred animals(灵物). Second, the structure of XianJing is analogous to a secular palace and there are a secular-like daily life. There are hierarchies and duties of a post to the immortals living in the XianJing. Third, the secular world is a time and space that bad fortune and diseases occur, while the XianJing is an intact space and time without them. Fourth, the immortal living in XianJing are concerned about secular people’s lives and have affection to secular people. The immortal tries to save people from suffering. Fifth, the superior immortal of XianJing assigns messengers or sacred animals(灵物) that embody their will. The messengers and sacred animals(灵物) grow up in the secular world. Sixth, those who contribute to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secular world and the XianJing and propagate the immortal’s will to secular people can become the immortal. Seventh, the new immortals also attempt to save secular people from sufferings like the existing immortals, and the secular people honor the benefits. The second feature is noted. Although the XianJing is the time and space inhabited by the immortals, it was not a world different from the feudal secular world at the time. However, Max Weber’s “monabiuro-kratie(家产官僚制)” is reflected in the system.

The values implied in the system were explored. From a consistent perspective that the ‘immortals’ are ‘human sublimation’, the ‘sacred Animals(灵物)’ are ‘animal sublimation’, and the ‘XianJing in 『LieXianZhuan(列仙传)』’ is ‘secular world sublimation’, it is examined that the sufferings in the secular world that anonymous immortals residing in the XianJing and the immortals returned to the secular world from the XianJing attempted to overcome. The values are categorized as eight criteria: farming without trouble, family love, justice in power, prevention of natural disasters, disease treatment, purification of mind, promotion of public wealth, and propagation of the immortals’ will.

These values are the concrete values within the system that have been omitted from the XianJing of “LieXianZhuan”. The values the immortals want to realize in the secular world are what they wished for before they became a immortals, and the realization of that ideal is ‘sublimation of the secular world’. The ‘sublimation of the secular world’ is the ultimate wish of the immortals. The system of Xianjing is different from an existing utopia type: Millenium, Utopia, Arcadia.

Such XianJing in 『LieXianZhuan(列仙傳)』 should be evaluated in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 it published. Considering the Warring States period, when people suffered from war and disease, hunger and natural disasters, and the tyranny of power, the realization of the values would be difficult, and if the values realized, it would be an ideal society in which the ideal was embodied, namely, the XianJing in 『LieXianZhuan(列仙傳)』. All in all, the XianJing of 『LieXianZhuan(列仙傳)』 was an idea that enabled readers to awaken reality and provide a vision for improvement, and an energy for a better society.

Key words: XianJing, farming without trouble, family love, justice in power, prevention of natural disasters, disease treatment, purification of mind, promotion of public wealth, propagation of the immortals’ will

이 논문은 2020년 10월 10일에 접수되어 2020년 11월 7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20년 11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